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버시티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27호

Monday, February 3, 2025 A

딸·아내 잃은 유가족, 마지막 대화도 “사랑해”

SPECIAL STORY

고 강새라 변호사 부친·남편 인터뷰

비극적인 워싱턴DC 포도맥강 여객기 참사로 6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한 한인 유족들도 통곡으로 긴 하루를 지새우고 있다.

한인 강새라 변호사(33세, 세라리 베스트)의 아버지 강영주(65세, 트루먼 베스트)씨와 어머니 이인숙씨(65세)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고 전했다.

강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애써 추스리면서 “막내딸이 남을 위해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변호사가 돼 하고 싶은 것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미련도 없다”면서도 “우리 부부는 딸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았기에



(사진 왼쪽) 고 강새라 변호사가 가족사진 (윗줄 맨왼쪽이 강영주씨, 두번째가 이인숙씨, 아랫줄 맨오른쪽이 고 강새라 변호사, 두번째가 대니얼 솔로몬 교수), (오른쪽) 강영주씨가 1981년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학위증을 받고 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줄여보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강영주씨는 1982년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그는 군복무 시절 한국의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적이 있으며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군사영어와 영어회화 교수로 활약하기도 했었다. 퇴역 후에는 테

네시주의 한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일하다 현재 은퇴했다.

강영주씨는 “새라가 딸 셋 중 막내였으나 속이 가장 깊고 말도 잘했다”면서 “새라가 7학년때 자기 언니가 내게 혼나는 것을 보고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냐’면서 언니를 보호했던 장면이 가장



깊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고인의 미국 이름 라스트네임이 ‘베스트’인 이유는 강영주씨의 모친이 미국인과 재혼하면서 양부의 라스트네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강새라 변호사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영주씨는 최근 모친을 여의고 장

례 등의 문제로 LA에 체류 중으로, 4일(화) 테네시를 거쳐 워싱턴DC에 와서 장례식 등의 절차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영주-이인숙 부부에게 세 딸은 큰 자라이었다.

큰 딸과 큰 사위는 모두 외과의사이며 둘째딸 부부도 대기업에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고인은 고교 재학 시절 1등 도맡아하고 밴더빌트 대학 거쳐 펜실베이니아 대학 로스쿨을 나와 연방법원 로 클럭을 거쳐 최근까지 워싱턴DC의 로펌 윌킨슨스태크로프에서 근무했다.

고인의 남편 대니얼 솔로몬은 고인의 모교인 밴더빌트 대학 고전 및 지중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솔로몬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내이자 소울메이트인 새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새라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지적이고 분석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김옥채, 김윤미 기자

▶ 2면 ‘딸·아내’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터졌다, 다음 타깃은 반도체

내일부터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중국엔 10% 추가관세 행정명령

결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업포가 아니라 선전포고다. 첫 과녁은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이다. 트럼프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으로 지목한 한국을 겨누는 것도 시간문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

도체·자동차·가전·2차전지 등 한국 주력 산업군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행한다.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1기’ 때는 업포만 놓고 멕시코와 협의해 관세를 실제 부과하지 않았다. 반도체도 조만간 부가가 유력하다.

행정명령 서명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반도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미팅이었다”며 “우리는 중국적으로(eventually)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석유와 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이며 아

마 2월 18일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관세 부가가 현실화하면 칩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무시하고 관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달러(약 226조365억

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경제부 장관에게 보복관세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은 WTO 제소를 시사했다.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트럼프에게 동맹국(우방국)도 예외는 없었다. 캐나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경제·외교 우방국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다.

김기환·박혜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충돌 직전 조종사 기수 들어올렸다

지난달 29일 군 헬기와 부딪혀 포도맥강에 추락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충돌 직전 기수를 들어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토드 인먼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여객기 잔해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연방교통부 출신의 사고감식 전문가 메리 시아보는 “조종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헬기를 피하려고 조종간을 당긴 것일 수 있다”면서 “충돌 1초 전까지 그들이 헬기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NTSB는 충돌이 상공 300-350피트(약 91-107m)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항공국(FAA)은 여객기와 부딪힌 헬기가 충돌 직전까지 200피트(약 61m) 높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헬기 제한 고도는 최고 200피트이기 때문에, 충돌시 고도가 300피트 이상이었다면 헬기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조종사들에게 운항 관련 안전 공지를 보내는 ‘노탐’(NOTAM) 전산 시스템의 에러로 인해 최근 일부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손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노탐 시스템이 최근 일시 정지 현상을 빚었다”고 시인했다.

FAA는 현재 시스템 정지 원인을 파악 중이다. 노탐 시스템은 2023년 1월에도 가동이 중단돼 항공기 1만 편 이상이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지난 31일에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응급 의료수송기가 도로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6명 전원과 지상에 있다가 폭발에 휘말린 주민 1명이 숨졌다. **김옥채 기자**

MD 장의사 스캔들 일파만파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의 한 장의사가 시신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메릴랜드 정부기관인 장의사 및 장례식장 감독위원회 위원 세 명이 주지사실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등 권력 스캔들이 발생했다.



노를 표출했다. 작고한 은퇴 경찰관의 아들은 “이 장의사가 우리에게 화장한 재를 건네줬으나 그 과정이 고인의 존엄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서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의 마셜 쿠타, 브랜던 와일리, 페트리 톰슨 위원은 주지사실로부터 직접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위원은 모두 감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위원회는 모두 11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지사가 지명권을 행사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찰스 카운티의 헤이븐 바운드 장례 서비스 회사가 시신을 적정 온도에 보관하지 않아 부패하게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시신 보관 박스와 가방도 찢어진 상태였다. 이렇게 잘못 보관한 시신이 18구에 달했다.

이곳에 시신을 맡긴 유족들은 분

연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서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이 장의사는 시정조치를 받고 2주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적발됐다.

이 장의사는 작년 3월에도 두 건이 적발돼 면허 정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 무어(사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고 지시한 이후, 주지사실에서 사퇴 압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어 주지사는 찰스 실러 전 연방 검찰청 검사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옥채 기자

▶ 1편 ‘딸·아내’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가 매사에 모든 것을 마스터 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대학 졸업후 봉사를 위해 펜실스와 내슈빌의 취약지역 공립학교에서 4년간 교사로 일했으며 펜실베이니아 로스쿨에서도 아시아 학생 친화 그룹(APALSA)을 아시아,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옹호 단체로 변화시키는게 큰 공헌을 했다”고 전했다.

솔로몬 교수는 “아내의 제자들과 동료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내의 가장 친한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들이 사고 직후부터 이곳 워싱턴DC에서 계속 제 곁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솔로몬 교수는 “새라와 나는 항상 서로에게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죽더라도 후회 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면서 “우리는 일주일 전에도 서로에게 이 말을 반복했으며 새라가



고강새라 변호사와 남편 대니얼 솔로몬 교수가 밴더빌트 대학 풋볼 경기에서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비행기 이륙 직전, 항상 그랬듯이 셀폰 비행기 모드로 바꾸기 전 마지막 문자로 ‘사랑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말이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고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전했다.

솔로몬 교수는 “아내는 훌륭한 변호사였지만, 매일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

어준 가장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아내이자 동반자였다”면서 “이벤트 때마다 항상 멋진 그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만드는 등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솔로몬 교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석연찮은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비극에 대해 의문을 보내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분노는 느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슬픔만 느낄 뿐”이라고 전했다.

솔로몬 교수는 “워싱턴DC 소방당국이 지난 주말 고인의 시신을 인양했으나 아직까지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개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주씨는 “사위가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후 화장재를 반으로 나눠 추모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옥채, 김윤미 기자**

겨울 6주 더 이어진다

펜실베이니아 그라운드호그 행사

펜실베이니아 고블레스 늑에서 그라운드호그 마모트의 봄 예측 행사가 열려 앞으로 6주 더 겨울이 지속된다는 점괘가 나왔다.

유럽 농촌에 뿌리를 둔 그라운드호그 데이 행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년 2월 2일에 개최된다. 다람쥐와 설치류 동물인 마모트(일명 그라운드호그)를 데리고 겨울이 얼마나 남아 있

는가를 점치는 행사인데 미국서는 펜실베이니아 집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라운드호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봄이 일찍 오고 반대로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40일 가량 더 지속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라운드호그는 역대 50년 기록을 살펴보면 정확도가 50% 미만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봄이 예년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옥채 기자

부고

정규섭 장로 천국 환송 예배, 오는 14일 거행

맥클린한인장로교회서

대한민국 해군 및 외교 분야에서 헌신하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정규섭 장로가 별세했다.

장례예배는 오는 14일(금) 오전 10시, 맥클린한인장로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로 진행되며 이후 낮 12시 30분, 지정된 장지에서 하관 예배가 거행될 예정이다.

정규섭 장로는 대한민국 해군 준장, 외무부 차관보, 뉴욕 총영사, 주미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 또한,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원로 장로로 봉사하며, 한미장학재단 미동부 회장, 국가원로자문회의 워싱턴지부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역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 최인숙 권사와 3남 1녀가 있다.

문의: 703-893-8651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4일(화)	57~32	☁	7일(금)	51~34	☁
5일(수)	38~33	☁	8일(토)	50~45	☁
6일(목)	56~40	☁	9일(일)	57~33	☁

2월 3일(월) 57~46

워싱턴 중일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광복회워싱턴지회 운영위원회 개최

독립유공자 유물

디지털화 사업 본격 추진

광복회워싱턴지회(회장 문숙)가 지난 31일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유물 디지털화 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활동 보고 및 재정 결산,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숙 회장은 “광복회워싱턴지회는 2019년 창립된 이후 한인 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전파하는 데 힘써왔다”면서 “김은 전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광복회의 활동이 더욱 알려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독립유공자들의 유물과 기록을 디지털화해서 널리 계승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4세대 이후의 한인 후손들이 조국의 역



문숙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운영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운영위원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미주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교육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복회워싱턴지회는 앞으로도 한인 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기념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정

신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광복회워싱턴지회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57가정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재정결산을 통해 총수입은 3만3586달러, 총지출 2만1960달러, 잔액 1만1626달러를 보고했다. 워싱턴지회는 올해사업 계획으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3.1절 및 8.15 광복절 기념행사 등을 발표했다.

김윤미 기자



한국외대 워싱턴 동문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워싱턴 동문회가 지난 31일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팔순을 맞은 동문을 축하하는 뜻깊은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원로 목사회 신년예배 원로 목사회(회장 이석해 목사)가 지난 28일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안인권)에서 신년예배를 개최하고 한미양국의 혼란이 가라앉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했다. 김윤미 기자

PCA 한인교회협의회 제28차 총회 성료

멕시코 칸쿤서 4일간 진행

신임 회장에 최형관 목사 선출

미국 장로교(PCA) 총회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류응렬 목사)가 지난 27일부터 4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미 전역 9개 노회에서 164명이 참석했으며, ‘목회자(The Pastor)’를 주제로 다양한 집회와 강의가 진행됐다.

개회 예배는 류응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노장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가 설교를 맡았다.

이어 브라이언 채플 목사(PCA 총회 서기), 백신종 목사(벤엘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등이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의 사명을 강조했다.



미국 장로교(PCA) 총회 한인교회협의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최형관 목사(낙원장로교회), 부회장에 최상렬 장로(와싱턴중앙장로교회) 등이 선출됐다. 새 임원진은 한인 교회의 연합과 사역 강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영적 충만함과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한인 교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윤미 기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회장 손경준)가 1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 내용 보고와 새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미 기자

① 워싱턴중앙일보 광고·구독 : 703-281-9660

OMNI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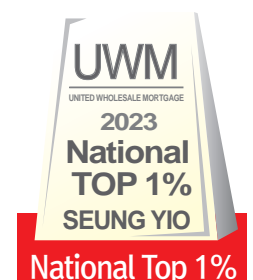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 2019, 2020 2021 and 2023 5년 연속 수상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트럼프, 언론 속아내기?...주류매체 퇴거 통보

NYT·NBC·NPR·폴리τικο에 “집싸”

미국 국방부가 각 언론사의 기자실 자리를 연례적으로 순환해 배치하겠다고 하며 미국 주요 매체 4곳에 기자실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 주류 언론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속아내기’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조너선 얼리엇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메모를 통해 “국방부의 제한된 기자실 공간에서 일하는 특권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누리지 못한 매체에 이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례 언론사 순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알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로 첫 출근하는 모습

이 정책에 따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NBC방송, 공영 라디오 NPR,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 등 언론사 4곳이 오는 14일까지 기자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매체의 자리는 타블로이드지 뉴

욕포스트, 케이블채널 원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와 허핑턴포스트에 돌아갈 예정이다. 얼리엇 대변인은 “유일한 변화는 새로운 매체들이 국방부 기자단의 상주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상주매체들

이 건물 내 공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퇴거하는 매체들도 여전히 기자단 정식 회원으로 브리핑 등에 대한 동일한 접근 권한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방부 기자단 내에선 NYT를 비롯한 4개 매체가 퇴거 대상이 된 데에는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엄격한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새롭게 자리를 배정받은 뉴욕포스트, 원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브레이트바트는 친(親)트럼프 성향의 매체로 평가된다. 허핑턴포스트는 진보적 성향이지만, 국방부에는 이 매체의 출

입 기자가 없다고 한다.

NBC방송은 “이번 조치로 국가 공익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지만, NBC는 항상 그랬듯 동일한 진정성과 철저함으로 보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국방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허핑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와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에 대한 더 강력한 보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단체인 전미언론클럽(NPC) 회장 마이크 발사모는 성명에서 “미 정부의 운영에 대한 언론인의 보도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는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린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들...불체자 단속에 조직적 대응

미국 이민자 공동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1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비했다.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위한 일리노이주 연대(ICIRR)의 홍보국장인 브랜든 리는 자신들이 구축한 기존의 이민자 ‘핫라인’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서로 알리는 용도로 전환할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반대 집회

계획을 일찍이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100개의 회원 단체들과 공유했다고도 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단체

들은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대응망을 구축했다고 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한 개인이 ICIRR 핫라인에 연락하면 ICIRR이 다른 단체들에 해당 활동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장 영상과 사진을 찍어 알리는 전략이다.

실제 시카고 리틀리리지 거리에 ICE 집행관들이 나타났을 때 이 연락망은 효과를 발휘했다. 리틀리리지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리틀리리지의 활동가들은 SNS 등을 통해 ICE 집행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시카고 시의원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동영상과 메시지가 밀려 들어왔다. 사람들이 집행관들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녔다”며 집행관들은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고 WSJ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민자 체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이 ICE의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추적하고 집행관들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민자들에게 교육하면서 체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대응과 함께 SNS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움직임도 활발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뒤 틱톡에는 ICE의 움직임을 알리는 영상들이 잇따랐다.

‘추방 위험’ 이민가정 아이들에게 배포된 ‘빨간 카드’

지난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다네िका 왓슨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민자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왓슨 교육감은 “연방 정책의 최근 변화는 이민을 단속하는 공권력이 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이민자 지위에 상관없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안전하게 느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들은 모든 학생과 가족, 교직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우리 교육구는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자 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슨 교육감은 기자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포함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내 글렌데일 지역의 공교육을 총괄하는 관리자다. 기자는 미 정부가 외국 언론사 특파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교육감의 이런 메시지는 묘한 안도감을 줬다.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대원들이 초등학교에까지 들어와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다른 아이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ICE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



속이 시작되면서 이민자 인구가 많은 LA 일대에는 긴장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21일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LA 공립교육구 교육감이 보

낸 메시지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남미계와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큰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척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중시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안에서는 당국이 불법 이민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인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ICE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를 벗어나면 아이들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A 시내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LAUSD 통합교육구는 최근 명함 크기의 빨간색 종이에 학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인쇄한 카드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카드에는 판사의 서명이 기재된 적법한 영장 없이는 누구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미 수정헌법 4조에 따라

개인의 물품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런 권리를 주장할 때 당국의 임의 체포나 구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일간지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레나 곤살레스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학교 캠퍼스에서 반경 1마일(1.6km) 떨어진 곳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이민자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불법) 이민 학생은 총 40만7천899명이다.

초·중학생에 대한 관련 통계는 없지만, 공교육이 대부분 무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학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마니타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렌트컨트롤 아파트 최고 6% 오를 듯

LA시 새 조례 1일 시행 가스·전기료 내면 4%까지

LA시 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는 1일부터 최대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LA 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렌트비 동결 조치 해지에 앞서 승인한 새로운 렌트 컨트롤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4%까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1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진희(32) 씨는 “작년에는 매달 145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면서 “렌트비가 오르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다. 내달부터 렌트비가 4% 오르면 김씨는 연간 약 7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컨트리클럽 인근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이은주(35) 씨도 새해 들어 렌트비를 매달 100달러나 더 내게 됐다. 이 씨는 “3년 동안 렌트비가 동결됐는데 한 번에 100달러나 올라 좀 놀랐다”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물주인 김 모 씨는 “LA시에 내는 물값이 두 배가 올랐고, 건물 유지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며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주로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다.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일부 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렌트비를 동결하거나 연평균 3% 내외 인상에 그쳤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 지역은 렌트비 인상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인상 폭은 LA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한인 등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이 4%에 그쳐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유경(46) 씨는 “렌트비 외에도 시에서 하는 건물 안전과 위생 검사 비용(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일부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며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렌트비가 4%씩 오르고 부대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정작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형재 기자

한인 셰프, 요리 서바이벌 출연

한식당 ‘양반’ 셰프 출연 한국 출생 후 미국에 입양

LA 지역 한인 셰프가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음식 전문 매체 이터 LA(Eater LA)는 오는 3월 13일 방영 예정인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탑 셰프’ 시즌 22에 캐시아나 흥(사진) 셰프가 출연한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흥 셰프는 LA 아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 ‘양반’의 셰프이자 공동 창업자다.

그는 남편 존 흥 씨와 함께 양반을 창업했으며, 남편 흥 씨 또한 양반의 셰프다.

흥 셰프는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입양돼 뉴욕주 클리프턴 파크에서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조 선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뒤늦게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해 요리 전문 학교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네바다주립대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했다.

흥 셰프는 샌타모니카에 있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멜리스(Melisse)’에서 요리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이후 그는 나파 밸리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레스토랑 옛 메도



우드(Restaurant at Meadowood)’에서 라인 쿡(파트장)으로 시작해 지난 2014년 총괄 셰프를 맡았다. 흥 셰프는 이때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최초의 여성 총괄 셰프’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22년 ‘양반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양반은 퓨전 한식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이번 ‘탑 셰프’ 시즌 22의 호스트를 맡은 크리스틴 키시 역시 한인 셰프다. 키시 셰프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에 입양됐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 까지 방영된 ‘탑 셰프’ 시즌 10의 우승자로, 지난해 ‘탑 셰프’ 시즌 21의 호스트를 맡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

LA한인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출

LA한인타운을 활동 지역으로 포함하는 월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가 대의원을 선출한다.

LA시 주민의회관리국은 후보 등록 마감일은 2월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며, 선거일은 4월 22일이라고 29일 밝혔다. WCKNC는 이번 선거에서 커뮤

니티 조직 대표(7명), 비즈니스 대표(7명), 광역 대표(4명), 소지역구 대표(7명), 청소년 대표(1명) 등 26명을 뽑게 된다.

청소년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마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WCKNC 관할지역 내

거주자는 물론, 근무지나 사업체(임대 포함)가 이곳에 있거나 이 지역 학교 재학생도 출마가 가능하다.

청소년 대의원은 14~17세까지 출마할 수 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대의원 후보 신청 및 관련 세부 내용은 LA시 웹사이트(clerk.laci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할리우드 대낮 칼부림 여성 뒤에서 무차별 공격

LA경찰국(LAPD)이 이스트할리우드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다.

29일 KTL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낮 12시쯤 샌타모니카 불러바드와 에지몬트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두 명의 동행과 함께 걷고 있었다. 용의자는 이들 뒤에서 접근해 갑자기 목과 얼굴을 찌른 뒤 도주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 여성

이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는 모습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키 5피트 6인치(167cm), 몸무게 약 180파운드(82kg)로 추정된다. 짙은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졌으며, 범행 직후 샌타

모니카 불러바드를 따라 동쪽으로 도주해 버몬트/산타모니카 MTA역 방향으로 사라졌다.

한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LAPD 하비에르 아빌라 형사(213-484-3631) 또는 LAPD 대표 전화(1-877-527-3247)로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는 LA 지역 범죄 신고처(800-222-8477)나 웹사이트(lacrimestoppers.org)를 통해 가능하다.

정윤재 기자



용의자가 보행 중인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LAPD 제공]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창금(미리조금)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창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캐나다 “미국 위스키 먹지말자” 중국 “WTO 위반, 반격할 것”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온 대로 1일 캐나다·멕시코(이상 25%)와 중국(10%)에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멕시코가 즉각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놔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드라이브가 국제 무역질서를 뒤흔들면서 글로벌 통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위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가 부과된다.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4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혔

다. 그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치명적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 때문에 취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안전 보장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의무”라고 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 부과

를 예고했다.

이에 위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나머지 1250억 캐나다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서는 3주 내 발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자국산 제품 구매를 촉구하며 “켄터키 버번 대신 캐나다산 라이 위스키를 택하거나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이라고 예시했다.

멕시코 정부도 “맞고만 있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맞불 관세” 의지를 천명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엑스(X)트위터 글을 통해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부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든 펜타닐을 두고 “미국의 문

제”라고 주장했다.

관세 대상국들은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재보복 조항도 들어 있다. ‘관세→보복관세→재보복관세’로 이어지는 무역전쟁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CNN은 “이번 관세 조치는 물가 상승, 공급망 훼손, 일자리 손실 등 전 세계 무역전쟁 확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화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트럼프, 관세로 방위비 압박

관세 무기로 한국과 재협상 나설 듯 대중 무역압박에 동참 요구 가능성

1일 현실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관세라는 무기를 동맹에도 예외 없이, 정치나 외교·안보 사안에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다. 탄핵 국면이라 ‘1차 펀치’를 피했을 뿐 한국 역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정리되는 몇 개월 뒤에는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한국에서 얻으려는 이득은 ▶방위비 증액 ▶대미 무역 흑자 조정 ▶대중 압박 전선에 적극적 동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자 나라를 비유)으로 불려온 트럼프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들어 올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관세 부과로 팔을 비틀어 한국의 부담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협정 기간은 2026~2030년이지만, 트럼프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는 선거 기간 중 “한국이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6년 기준 부담액은 1조5192억원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방위비를 내라는 만큼 내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거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557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트럼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대미 무역흑자는 약 115억 달러였지만,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선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연계된 유예 기간을 기회로 삼

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국의 대응 수준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범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대미 흑자 상쇄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관세전쟁의 최종 타깃으로 중국을 설정한 트럼프는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머뭇거리는 동맹에는 동참하라고 고동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3월 무역확장법(232조)을 근거로 중국과 한국 등의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 관세 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중국산 철강의 환적(換積) 수출 국가, 즉 우회 수출의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는 한-중 간 무역 연계성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토마토·소고기... 미국 식탁물가 비상 WSJ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가 4일부터 인접국에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경우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수입 물품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식품 물가다. 미 농무부·세관 통계를 보면 2023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1959억 달러·약 285조원) 가운데 44% 물량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됐다. 특히 멕시코는 겨울철 미국 신선 농산물의 주요 수입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보카도 수입 물량의 90% 가까이 멕시코산이며, 오렌지주스(35%), 딸기(20%)의 비중도 높다. 미국은 연간 멕시코산 소 100만 마리를 수입하는데,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고공행진 중이다.

또한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근처 온실에서 재배되는 방울토마토도 미국으로 대량 공급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WSJ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수입업체가 일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물가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생산자들 역시 수입품 가격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은 사실에서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역사학자 버나드 루이스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평가했다. 위문희 기자

빌 게이츠 “늘 좌파였던 실리콘밸리, 우파 많아 놀랐다”

“실리콘 밸리는 늘 중도좌파라고 생각했다. 이제 상당한 우파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 갑부인 빌 게이츠(69·사친)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달라진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다.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는 그간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크 저커

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빅테크 거물들이 지난달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부하거나, 트럼프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등 사실상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게이츠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단체에 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AP 등 외신은 보도했다.

다만 게이츠는 이를 공개적으로 밝

히진 않았다.

게이츠는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만난 사실도 전했다. 지난달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



이즈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NYT의 질문에 “(가상화폐의 쓸모는) 전혀 없다”며 “높은 아이큐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가 가상화폐를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게이츠는 2022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열린 기후변화 콘퍼런스에서도 “NFT 등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더 멍청한 바보 이론(the greater-fool theory)’에 기반을 둔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더 멍청한 바보 이론’은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투자자, 즉 ‘더 멍청한 바보’가 있다는 기대에 따라 투자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이날 인터뷰는 오는 4일 게이츠의 첫 자서전 『소스 코드(Source Code): 나의 시작(My Beginnings)』 출간을 앞두고 진행됐다. 게이츠의 첫 자서전 3부작 중 첫 번째다.

게이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개인 삶을 다뤘다. NYT는 “게이츠는 다른 테크 억만장자들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지혜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리에서 300, 갈바스로드 북쪽 99번 교차로(가-마)에서 100여 거리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챌들리(가-마)와 센터빌/챌들리 북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s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lum@prosperslawpllc.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1.3만명 부산역 집회에...야당“극우 선동” 여당“민심 매도”

(경찰 추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날 국가비상기도회 집회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 추산 1만30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우산 들고 '탄핵 반대'... 정치권 공방 일타강사 전한길 '계엄안건계몽령'

1일 부산역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여야가 '극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 추산 1만3000여 명,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고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폭주, 내란 선동 STOP" 등을 외쳤다. 박수영·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본명 김성원) 등이 연사였다. 이날 집회에서 전한길씨는 "(계엄령

은) 언론의 편파 보도,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연설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변 도로를 물론 건물의 옥상까지 빼곡했다"(박수영 의원), "부산역 지상, 지하, 역사 등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김미애 의원)는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일 "극우세력과 함께한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 발언이 난무했다. 국민을 참칭한 극우 선동"이라고 논평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지의 보수의 핵심 가치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역 집회 등 일련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은 극우 세력의 결집이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여야 정당 지지율 경합을 설명하는 데 이 시각을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망상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전광훈식 극단주의, 테러, 파시즘과 결합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이런 극우화 흐름은 여론조사상 중도층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40%가 극우로 보이면 혹시 내가 극좌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인 이상휘 의원은 2일 "MBC 등 민주당을 추종하는 일부 언론사가 거대한 민심을 '극우'라는 한마디로 매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극우 몰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극우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 파시즘이고 극우"라고 했다.

부산의 전직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히 이번 부산역 집회를 극우로 몰아가는 건 민심을 대단히 오독하는 것"이라며 "거기 모인 사람들 사이에 아스팔트 보수냐, 중도 보수냐 하는 경계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위험감과 분노로 당원 아닌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극우는 2차 세계대전 직전나 치졸처럼 국수적 민족주의와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준호 예스티아이 대표는 "최근 보수 집회의 구호는 제도 수호나 법규 준수와 같은 전통적 우익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굳이 정의하자면 극우보다는 '극단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재목(정치학) 한국외대 교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극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포비아'로 당리당략만 취하려 한다"며 "여야 공히 갈등을 조장하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세롬·장서윤 기자

'탄핵반대' 급부상한 일타강사 전한길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연사로 나서고 적극 견해를 피력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강의 듣는 수험생들은 네이버 카페 '전한길 한국사'에서 전씨의 '변신'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카페는 수험생이 질문을 올리는 용도로 개설됐지만, 전씨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자 "극우 아니냐", "정치글을 자제하라"는 반발이 일었다. 반발 글은 삭제됐고 작성자는 탈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가입과 게시물 작성도 일부 제한된 상태다. 수험생들은 국가직 9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댓글로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으면서 "정말 수험생들을 위한 길이나"라고 말했다고, 또 다른 수강생은 "많은 제자 중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선관위 공무원들도 있



다"고 했다. "강사로서 한길만 안 가져서 탈퇴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일부 수험생은 "저도 부산 집회 참가했다", "사전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집회에서 내용은 일부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일부 현재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현재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선동성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씨는 2일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거듭 주장을 폈다.

그는 "(저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기성 정치인과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며 "제 역사관은 좌파와 우파의 프레임 넘어서 합리적 사고와 객관적 역사 인식에 의한 '상식파'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 "민주당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내 연봉은 60억인데 이를 못 벌지도 모르고,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욕먹을 각오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은 구독자수가 급증해 100만명을 넘었다. 전씨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신변 보호에 나선 상태다.

전병헌 "민주당, 文덕담까지 왜곡"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 후 민주당 측 전언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민심 왜곡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회동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전달한 것과 관련해 "직접 확인한 결과, 민주당의 전언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

표가 통합과 포용 행보를 잘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며 "덕담까지 왜곡하여 거짓으로 전달해 문 전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AI 인재 1만명 양성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AI(인공지능) 인재 1만명 양성을 서울시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새 AI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를 두고 "연구 인력 139명뿐

인 작은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이뤄낸 혁신"이라며 "전문학적인 투자나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관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2월 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천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 ✓ 테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 ✓ 잦은 고장으로 시도때도 없는 연락
- ✓ 렌트비가 늦거나 안보내는 경우
- ✓ 타주나 한국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

일 잘하는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세요! 맡기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시면...

- 좋은 테넌트 선별과 선정
- 매달 렌트비 컬렉트
- 각종 수리
- 테넌트 사소한 문제 해결
- 고문 변호사와 테넌트 법적 분쟁 해결
- 해당 집/건물/주기적 점검/보수/수리
- 그 외 건물주 100% 대행

뉴스타가 새롭게 소개하는 커머셜 리스팅

메릴랜드 안전지역 리커 & 와인 (건물포함)
주매상 \$5만
현재 주인 거의 일하지 않고 있음
비지니스만 \$2만

메릴랜드 위트지역 Beer & Wine
주매상 \$38,000
아주 안전한 지역
\$900K

버지니아 알링턴 일본 식당
새로 꾸민 식당
렌트 \$14,500
\$8만

버지니아

<p>1</p> <p>\$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p>	<p>2</p> <p>\$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p>	<p>3</p> <p>\$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p>
<p>4</p> <p>\$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p>	<p>5</p> <p>\$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p>	<p>6</p> <p>\$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p>
<p>7</p> <p>\$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은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8</p> <p>\$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p>	<p>9</p> <p>\$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10</p> <p>\$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붕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p>	<p>11</p> <p>\$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p>	<p>12</p> <p>\$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p>
<p>13</p> <p>\$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벨몬테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p>	<p>14</p> <p>\$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p>	<p>15</p> <p>\$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며진 멋진 타운 홈, 마루바닥</p>

메릴랜드

<p>1</p> <p>\$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p>	<p>2</p> <p>\$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p>
<p>3</p> <p>\$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p>	<p>4</p> <p>\$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텃밭</p>
<p>5</p> <p>\$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p>	<p>6</p> <p>\$680,000 케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넓은 뒷뜰</p>
<p>7</p> <p>\$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 멋진 싱글 홈</p>	<p>8</p> <p>\$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널 힐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쁜 집</p>
<p>9</p> <p>\$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만나오는 집. 깔끔.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p>	<p>10</p> <p>\$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p>

DC

<p>1</p> <p>\$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p>
<p>2</p> <p>\$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p>
<p>3</p> <p>\$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p>
<p>4</p> <p>\$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집</p>
<p>5</p> <p>\$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체비세치 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p>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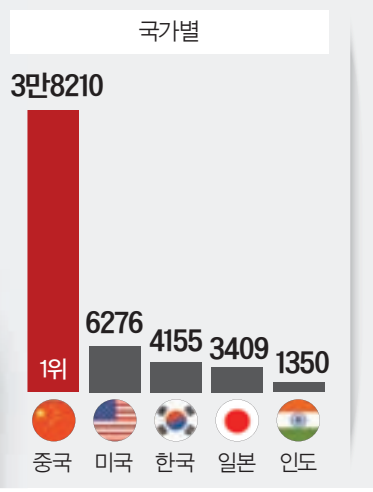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클릭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값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중국 AI기업 4700개 넘어… 딥시크는 그중 하나일 뿐”



10년간 출원된 생성 AI 관련 특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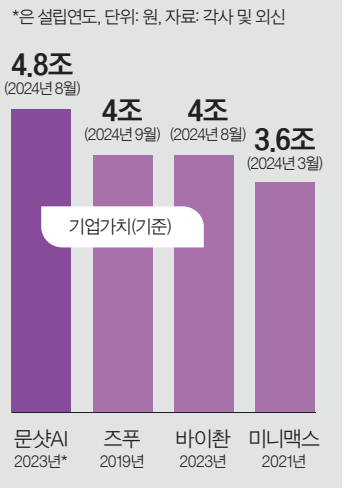


2014~2023년, 단위 개, 자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환경보고서 '생성 AI' 편

대학·기관별	특허 수
1위 중국 과학아카데미(중국)	607
2위 칭화대학교(중국)	321
3위 저장대학교(중국)	320
4위 저장과학기술대학교(중국)	190
5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	89

기업별	특허 수
1위 텐센트홀딩스(중국)	2074
2위 평안보험(중국)	1564
3위 바이두(중국)	1234
4위 IBM(미국)	601
5위 알리바바그룹(중국)	571

중국 AI 신 4대 천왕



중국 AI, 10년 전 전략 세워 개발 “한국, 인재유출 막고 기업 키워야”

오픈 AI의 챗GPT가 전세계 ‘생성 인공지능(AI) 붐’을 촉발한 지 2년여. 지금껏 글로벌 시장에 통용된 생성AI 모델 개발사는 대부분 미국 회사였다.

그런데 창업 2년 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AI 모델 ‘R1’을 공개하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를 뚫고 미국산 대비 18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굴기(崛起)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 내 AI 기업은 4400개(2023년 기준)가 넘는다. 그중 생성AI 기술을 채택해 연구개발하는 기업 비중은 15%(약 700개)에 달한다. 자오즈궈 공업정보화부 대변인(겸 수석엔지니어)은 지난해 12월 중국 내 행사에서 “현재 중국 AI 기업 수는 4700개가 넘는다”며 “등록 후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이 200개 이상이고, 사용자 수도 6억 명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중국 AI 굴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이른바 ‘대중창업 만중창신’ 전략(혁신창업 진흥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나온 ‘전략성 하이테크

분야 기술 연구개발(R&D)의 도약적 발전’ 계획이 출발점이었다.

2021년엔 ‘14·5 규획’에서 ‘2025년까지 핵심 기술 자립화율 70%, 2030년 세계 AI 강국 도약’이란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엔 리창 총리가 10대 정부 과제 첫 번째 항목으로 ‘AI+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경영연구소장은 “대중엔 많이 안 알려졌지만 딥시크는 이미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시나리오 안에서 준비된 기업으로 보인다”며 “딥시크는 4000개가 넘는 중국의 AI 회사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AI 드라이브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부터 성과를 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해 7월 펴낸 특허환경보고서 ‘생성 AI’ 편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출원된 생성AI 관련 특허 5만4000여 건 가운데 중국 출원 특허는 3만8210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2위 미국(6276건)의 6배 규모다. WIPO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 출원 건수가 매년 50%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발간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4’에서 “중국이 AI 특허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근차근 쌓아올린 중국 AI 기술력은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고성능 AI 모

델 출시로 열매를 맺고 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22일 최신 AI 모델 ‘더우바오-1.5-프로’를 공개하며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o보다 지식 유지, 코딩, 추론, 중국어 처리 분야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엔 알리바바가 새 AI 모델 ‘Q1 2.5-맥스’를 출시했다. 알리바바는 “오픈AI의 GPT-4o와 딥시크-V3, 메타의 라마-3.1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거대언어모델 200개, 사용자 6억 명 넘어”

AI 스타트업 중에도 이미 수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회사들이 즐비하다. 문샷AI는 수학·코딩·멀티모달 추론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GPT-4o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 ‘키미(Kimi)-k1.5’를 최근 출시했다. 지난해 8월 이 회사는 33억 달러(약 4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칭화대 컴퓨터과 1996학번 장평(張鵬)이 2019년 창업한 지푸(智譜)AI도 주목받고 있다.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 텐센트 투자, 샤오미 등으로부터 55억 위안(1조 1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기업 가치 평가액은 28억 달러다. 바이훤(28억 달러), 미니맥스(25억 달러) 등도 조 단위 기업가치를 달성한 AI 유니콘이다. 지난해 각각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01.AI, 스타랩 등도 최

근 주목받고 있다. 중국 칭화대 공대 출신인 백서인 한양대 중국지역통상학과 조교수는 “중국에서 딥시크는 원래 유명한 팀도 아니었고, AI를 연구하던 곳도 아니었다. 그저 2년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것만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된 것”이라며 “알리바바·바이두 같은 거대 기업은 물론 ‘AI 신(新) 4대 천왕’ ‘여섯 호랑이’ 등 별호로 불리는 스타트업까지 그간 주목받았던 회사들이 만든 AI 모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계는 대학에서 키운 인재를 바탕으로 죽기살기식 경쟁에 여념이 없다. 거대 규모에도 승자독식이 일어난 중국에서 경쟁은 한두 기업이 남을 때까지 치열하게 펼쳐진다. 공커(龔克)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전략 연구원 원장은 “현재 중국의 AI 개발은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세 방면에서 독창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새 AI 알고리즘에서 중국의 연구 성과가 네이처에 실리고 있다”고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신에 밝혔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혁신적 알고리즘으로 우회해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승자독식 중국, 기업 간 죽기살기식 경쟁

일각에선 정부 주도 성장으로 인한 독장성 부족을 중국 AI 굴기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지난달 31일 딥시크에 대해 “기술적으로 유능하긴 하나 독창적이지 못한 시도”라며 “검열 제약,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모방을 선호하는 연구 문화 등으로 (기술 발전에) 방해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한국 내 AI 전문가도 “중국 AI는 원천 아이디어, 창의성 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 정부는 규제에도 앞장서는 이중적 존재이기도 하다. 2021년 인터넷 차르로 불리는 국가인터넷판공실(CAC)은 ‘14·5 국가 정보화 계획’을 발표해 2020년 27만5000곳이던 첨단 기술 기업을 2025년 45만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한다. 동시에 알고리즘을 규제·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에 알고리즘 제출을 의무화했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CAC가 기업 알고리즘을 심사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를 퍼뜨리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보다 주목받는 게 AI와 하드웨어의 결합 잠재력이다. 지난달 29일 중국 ‘춘절(春節)’ 갈라쇼에 휴머노이드 군무단을 등장시킨 중국의 유니트리로보틱스는 얼마 전 돌 닥인 산과 계단, 물건을 넘나드는 로봇 개 ‘B2-W’를 공개해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정용환·김민정 기자, 신경진 기자

딥시크 충격에… 오픈AI 올트면, ‘오픈소스’ 입장 바꾸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출시로 도전에 직면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소스 방식에 대해 전향적 발언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트먼 CEO는 지난달 31일 레드 주최 행사에서 AI 모델 관련 기술 일부를 공개하고 연구 결과 발표를 늘릴 것인지 묻는 말에 내부적으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서 있었으며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AI의 모든 이가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우리의 최우선 사항도 아

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올트먼 CEO는 딥시크가 오픈AI의 우위를 약화시켰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만들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보다 더 적은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기술 매체 테크크런치

가 전했다. 딥시크 모델은 전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누구나 자유롭게 기본 코드 등을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US이주투어 마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 23-25년 새 VVIP버스 6대 운영!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서울 02-522-8686 info@usajutour.com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리,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비카, 다이아몬드비,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가족, 친구,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이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마주 항공부 한국행 항공이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은 마주!

40년을 아주 명품 유람

영국일주/벨기에/네덜란드 12일 ▶4/21 \$5899 ▶ \$5199+항공료
인솔자 동행, 노스톱 왕복항공 포함, 특급호텔, 네덜란드 톨립축제 관람 등.

영국일주 10일 ▶4/21 \$4899 ▶ \$4399+항공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19, 6/4, 16, 7/15, 8/5, 19, 9/2 \$5999 ▶ \$4999+항공료

북유럽 4개국 11일 ▶5/19, 6/4, 16, 7/15, 8/5, 19, 9/2 \$4999 ▶ \$4199+항공료

발틱일주 3개국 6일 ▶5/27, 6/12, 24, 7/23, 8/13, 27, 9/10 \$2199 ▶ \$1999+항공료

서유럽 11일 ▶3/20, 4/3, 17, 5/1, 15, 6/5, 19, 7/8, 29 \$3399+항공료
8/12, 9/2, 16, 30, 10/14, 12/21

이태리일주 7일 ▶3/24, 4/7, 21 \$1999+항공료
5/5, 19, 6/9, 23, 7/12, 8/2, 16, 9/6, 20, 10/4, 18, 12/25

동유럽/발칸 13일 ▶4/18, 5/2, 23, 6/13, 7/11, 8/1, 9/4, 18, 10/2, 16 \$3299+항공료

서아일랜드/몰타 10일 ▶3/12, 4/29 \$3399+항공료

스위스일주 7일 ▶4/29 \$4399+항공료

남프랑스 8일 ▶4/21 \$3999+항공료

영국+스위스일주 15일 ▶4/21 \$8999+항공료

코카서스 3국 11일 ▶4/17 아르메니아/조지아/아르메니아 \$3499+항공료

100년의 역사를 무료로 드립니다
서유럽 11일 투어시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 식물성 고리 올리브 비누를 1가정 당 1개씩 드립니다. 40여년 유럽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수평은 피렌체에서 로마가는 길에 수령 가능합니다.

추억이 달라지는 여행!
US이주투어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이주투어!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 VVIP버스 도입기념! L.A. 출발상품으로 항공료 불포함 가격 ▶2/10, 11, 15, 16, 18, 22, 25, 28 \$99 꽃구경(브라섬) 당일 ▶3/1 \$129 ▶2/25, 27 \$329 태평양기차여행/레드우드 2일 ▶1/28, 2/11, 25 \$449 ▶3/59 세도나/몬테주마 캐슬 3일 ▶2/4, 18 \$549 ▶3/99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VIP 버스 2. 초특급 5 s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통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 남만포차 거리, 흑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감치구이, 흑돼지구이 특식 2회), 국제시장, 울산 웅기마을, 경주 불국사,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제주 3일 ▶수 \$499+항공료
서해/제주 동해/제주 ▶수 \$14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수 \$999+항공료
동해/부산 4일 ▶화 \$799+항공료

라디오 서울 창사 33주년 기념! 아주관광 함께합니다!
봄맞이 벚꽃일주 7일 ▶3/26, 4/2 \$1599+항공료
경북곡 한복 입고 관광, 청와대, 롯데 타워, 민속촌, 산청 한방 체험, 남해 벚꽃 관광

일본일주 7일 ▶3/18, 25 \$1899+항공료
신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호텔朝食 및 특급식사, 인천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동행

베트남/캄보디아 7일 ▶1/31, 2/14, 28, 3/7, 21, 4/1, 16 \$1199+항공료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툼성,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왓, 톤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라스베가스 2박/트레이드 아일랜드 호텔

아주 단독! 32인승 25년 새 VVIP 버스!
6대의 23-25년형 새 V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아주 단독! 스피어는 아주와 함께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한인 컨트랙은 아주 뿐!
아주 단독!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국립공원과 컨트랙으로 아주만 방문합니다!

미서부완전일주 7일 ▶월 \$1469+항공료
2개 상품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탈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뱅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탈롭캐년 4일 ▶월 \$809+항공료
아주 단독! 페이지 햄트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월 \$889+항공료
레디스,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뱅 등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월 \$1339+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미동부 뉴욕맨하탄,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5일 ▶수, 토 \$1150+항공료 8일 ▶수, 토 \$1700+항공료
올드퀘벡 숙박

캐나다 아주투어에서 떠나는 럭셔리하고 품격있는 캐나다 여행을 경험하세요!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캐나다록키 6일 ▶월 \$1199+항공료

힐튼호텔/엘로스톤 시내 숙박! 아주단독! 최신형 대형버스 보장!
엘로스톤/그랜드티톤 4일 ▶월 \$899+항공료
아주단독! 강가 신축 힐튼호텔, ▶첫출발 5/12, 매주 월, 금 한인관광사 유일 엘로스톤 시내숙박, 전일정 호텔 조식은 아주 뿐!

출발보장! 밴프 숙박 보장! ▶매주 월 \$1199+항공료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매주 월 \$1699+항공료
캐나다록키 6일 ▶매주 월 \$1199+항공료
발데즈알라스카 6일 ▶매주 월 \$1699+항공료

록키 5대 호수를 가는지 꼭 확인!
모래인 호수, 페이트 호수, 보우 호수 루이스 호수, 에메랄드 호수

큰바위얼굴/크레이지호스 4일 ▶월 \$1049+항공료
▶5/23, 7/4, 8/29

아주 크루즈
얼리버드 할인예약!! 크루즈의 특성상 오래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해야 안심입니다! 크루즈도 아주가 정답입니다!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아이슬랜드/그린랜드 크루즈+레이카비크 14일 ▶수 \$5350 ▶8/20(1월31일까지 예약시) \$5799 ▶6/10

로얄 프린세스호(14인5천톤)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만세 포함
알라스카 8일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499+항공료

바하멕시코 5일 ▶4/28, 5/12 \$499 ▶1/23, 2/25, 6/3, 7/15, 8/12, 9/9, 10/2 \$499
멕시코리베라 6일 ▶1/23, 2/25, 6/3, 7/15, 8/12, 9/9, 10/2 \$499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26, 10/31 \$3099 ▶5/24, 6/27, 8/10, 9/13 \$1099+항공료
웨스턴카리브해 8일 ▶3/26, 10/31 \$3099 ▶5/24, 6/27, 8/10, 9/13 \$1099+항공료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삼바 축제 + 남미 13일 ▶3/6 \$4999+항공료
전문 가이드 동행!
아름다운 리오 일주, 삼바 챔피언 페레이드입장료, 이과수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나스카문양(경비행기 포함) 등.

남미일주 13일 ▶2/8, 23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2/8, 23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2/3, 17, 3/12, 4/7, 21 \$2199+항공료
멕시코시티&중부 5일 ▶월 \$124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0일 ▶2/3, 17, 3/12, 4/7, 21 \$3899+항공료

코스타리카 6일 ▶2/10, 3/10 \$1149+항공료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론 온천욕, 호텔朝食, 로스라고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즈) 4일 \$1100+항공료 5일 \$1500+항공료 6일 \$1900+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 캘리포니아) ▶2인이상 수시 올인크루즈 4일 \$1050+항공료 5일 \$1350+항공료 6일 \$1650+항공료

아르헨티나 & 칠레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 빙하탐사 크루즈 ▶2/13 \$11900+항공료
특급호텔 | 가이드 동행!
여기를 알기엔 파타고니아를 방문 본 것! 토레스 델 파이네! 가막히게 멋진 국립공원 푸에르토 나탈레스! 지금의 최담담 땅따먹기 우수이아!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2/13 \$8449+항공료
칠레 파타고니아 ▶2/13 \$8449+항공료

이집트/요르단 12일 ▶2/13, 3/13 \$3999+항공료
이집트일주 9일 ▶2/13, 3/13 \$3299+항공료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숙박! 대피라미드!

인도/네팔 14일 ▶2/10, 11/10 \$4899 ▶ \$4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600 할인 전신!

동남아&일본 아주에서 가시면 안심입니다! 한국지사에서 목적을 골라 편안하고 알찬 일정으로 모십니다!
일본일주 7일 ▶3/18, 25 \$18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2/14, 28, 3/7, 21, 4/1, 16 \$1199+항공료
방콕/파타야 5일 ▶수시출발 \$699+항공료
베트남/하롱베이 4일 ▶2인이상 수시 \$649+항공료

하와이/마우이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픽업 호텔朝食, 오후우섬 일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4일 \$949+항공료 5일 \$1099+항공료
와이키키 메리엇 4일 \$1149+항공료 5일 \$1349+항공료
해트리진 와이키키 4일 \$1249+항공료 5일 \$1499+항공료
세라튼 와이키키 4일 \$1399+항공료 5일 \$1749+항공료

아프리카+ 두바이 16일 ▶2/26 (마감) \$11499+항공료
▶10/15 \$9999+항공료 (2월 20일까지)
베테랑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랫지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피지 합선! 호텔 비교! 가격이 다르면 품질이 다릅니다!
남태평양 ▶2/11, 3/18, 4/9
A 피지/호주/뉴질랜드 \$3799+항공료 B 뉴질랜드/호주 \$3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아주 남태평양투어가 명품인 이유?
1.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 2. 최고의 만족도 3. 항공이동으로 버스 타는 8시간 절약 4. 최고급 식사와 맛있는 특식 5. 반지의 제왕 촬영지 6. 지상의 천국 피지 7. 반딧불 등롱 포함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헌재 ‘마은혁 보류’ 오늘 결론... 여 “임명 안돼” 야 “즉각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

여당 “국회 의결 안 거처 절차 하지” 야당 “최상목, 헌재 결정에 따라야” 최대행 “결론 난 뒤 판단” 신중 입장



헌재는 3일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한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서로 상반된 요구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 안고 있다.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헌재는 판례를 준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도 공개 압박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관은 대

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우 당 공동법률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

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집행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최 대행을 겨냥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최 대행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로부터 정반대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 대행은 “(권한쟁의) 결론이 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헌재 결정과 최 대행의 후보자 임명권은 별개’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무위원은 “권한쟁의 판단이 최 대행의 행동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부추긴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합하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2009년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등 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내용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못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나한·이창훈 기자

“정치가 극단화 된 환경 변협 철저히 중립 지킬 것”

“법무사 등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리걸테크는 철저한 규제 필요 방치하면 기업만 배 불릴 수도”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첫 로스쿨 출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당선됐다.

김정욱 변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달 20일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63·군법무관 7회·5999표)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다. 회원만 3만여 명, 변호사 직역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변협이 배출한 첫 40대 회장이자 임기 3년 연장 이후 첫 회장이란 기록도 세웠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난 김 당선인은 “변협을 과거와 다른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동시 진행할 계획이 20개가 넘는다. 유사직역 문제 해결, 변호사 역할 확대, 리걸테크·AI 운영 가이드라인 협의 등

굵직한 사안도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인은 만나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서의 계획을 들었다.

변협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법률시장의 포화와 법조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외 부감사법(외감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재판 전 증거공개) 제도 도입 법안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과돼도 변호사 업계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한다. 외감법은 유관기관 신호도 긍정적이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법조 유사직역은 통폐합 입장인가. “법무사·행정사 등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로스쿨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로서 소양을 쌓고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라는 것 아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변협이라는 조직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김종호 기자

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리걸테크 활용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선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배달의민족, 카카오 택시 처럼 방치하면 사업자(변호사)와 이용자는 힘들어지고, 기업만 배 불린다.”

인공지능(AI) 변호사 등에 대한 입장은, “AI는 대국민 서비스로 허용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도구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비법조인이 AI에만 의존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돌아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AI 법률 정보 접근을 제한하지는 건가. “접근의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발전 방향을 애초부터 전문가의 도구로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체적으로 변호사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법조인 전용 AI 개발도 하려고 한다.”

김 당선인은 인터뷰 말미에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변협도 매도당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입맛이 안 맞으면 아전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사안마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겠다. 변협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당선인은 “무조건 전 회원, 각 지방회로부터 추천받은 다음 검증위원회를 최대한 거쳐 그 결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언급되는 향후 총선 등 출마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양수민 기자

권영세·권성동, 오늘 윤 대통령 면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투톱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나경원 의원이 동행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면

회하는 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면회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 있다”며 “권 위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에서도 깊은 인간관계가 있어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별도로 신청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지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며 “탄핵심판이라든지 또 형사 재판과 관련해 (지도부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 이전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며 “친구가 어려울 때 격려하는 건 인

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면회)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집권 여당의 투톱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윤 대통령을 면회하면서도 ‘개인 자격’을 내세우는 건 현재 국민의힘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탄핵심판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마냥 거리를 두기

도, 그렇다고 완전히 꺼안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고 변명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썼다. 권호기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특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Loft, 방2, 화장실2, 완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 450,000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 710,000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483,000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26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엄마 약 챙기고 동생 기저귀 갈고... '아동 가장' 2만4000명

돌봄 받을 나이에 돌봄 부담 떠안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32% 그쳐

척추 디스크와 천식·우울증을 앓는 엄마, 두 번째 생일을 넘긴 여동생. 초등 1학년 박유진(가명)양이 챙겨야 하는 가족이다.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고, 해맑게 춤추는 건 영락없는 여동생 살아 이. 하지만 어머니 약봉지를 챙겨주고 구토한 걸 치우거나, 여동생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은 또래와 사뭇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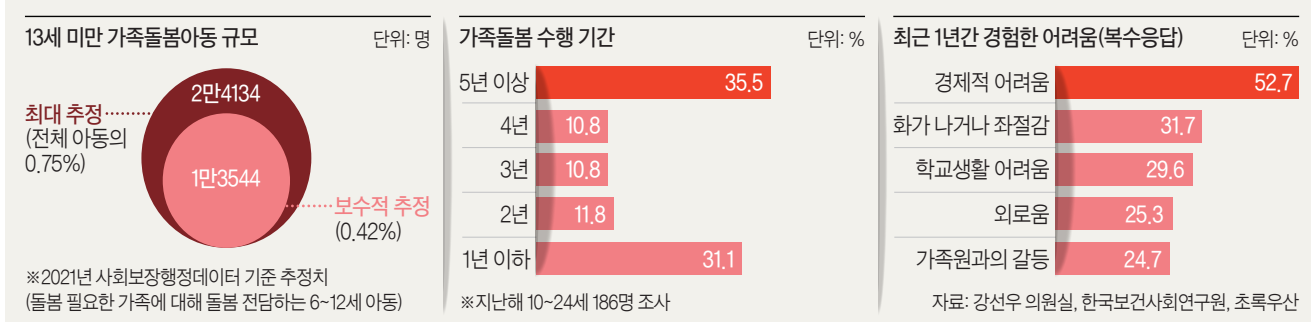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외곽의 한 연립주택에서 만난 유진양은 “내가 집에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엄마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어머니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유진양에겐 소아 우울 증세까지 나타났다. 어머니는 “(유진이가) 힘들고 투정 부리고 싶는데, 편스레 감정을 숨기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유진양 같은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아동)이 전국에 최대 2만4000여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초등생 200명 중 1명 안팎은 가족돌봄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을 계기로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뒤 처음 나온 가족돌봄아동 공식 조사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족돌봄을 전담하는 6~12세 아동은 1만3544~2만4134명으로 추산됐다. 6~12세 전체 인구(321만여 명)의



복합 위기에 놓인 가족돌봄아동



초등 4학년 김준희(가명·오른쪽)가 집에서 두 남동생과 케이크를 먹고 있다. 어머니 대신 식사를 챙겨주는 게 익숙하다.

전민규 기자

0.42~0.75%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다. 장애가 있거나 재난적 의료비 등을 수급하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을 돌볼 어른 구성

원이 없을 때 가족돌봄아동으로 분류했다. 경기-서울-경북 순으로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32.1%에 그쳤다.

현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 이들을 지원할 법안도 국회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 특히 13세 미만이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앞서 13~34세 영케어러 실태조사 결과만 발표했는데, 해당 연령의 1.3%인 15만여

명(2020년)으로 추정됐다. 장기요양서비스·장학금 연계, 돌봄비 지원 등 지원책도 청소년·청년 중심이다. 지자체 조례상 지원 대상은 서울 9~34세, 강원도 14~39세 등 제각각이다. 강선우 의원은 “가족돌봄에 내몰린 어린이들은 자신을 ‘가족돌봄자’라고 인식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의 초등 4학년 김준희(가명)군도 우울증이 심한 어머니를 대신해 7살, 3살 남동생을 챙긴다. 지난 12월 19일 만난 준희군에게 할 줄 아는 요리를 물어보니 어른 못지않았다. “김치 볶음밥, 계란말이, 된장찌개...” 준희군은 심리 불안으로 손·발톱을 심하게 뜯는다. 어머니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아동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록우산이 지난해 10~24세 영케어러 186명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가족돌봄을 맡았다는 비율이 3명 중 1명(35.5%)뿐이었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화가 나거나 좌절감-학교생활 어려움 순이었다.

김승현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집에서 간병·집안일 등을 하다 보면 학업 시간이 줄고, 친구 관계도 소홀하기 쉽다. 심리적 문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가족돌봄아동 발굴부터 지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채혜선 기자

초1때부터 15년째 엄마 간병... “내 미래는 없어, 포기 생각도”

“간병에 학교도 못가, 친구도 차단” “학생 땀 폰 없애고 학원 끊고 살아”

“엄마를 간병하며 한순간도 나로 살아본 기억이 없다. 한 어른을 한 아이가 어떻게 돌보겠는가?”

가족돌봄 15년째인 21세 새벽(가명)씨가 일기처럼 쓴 글이다. 초1 당시 시작한 돌봄을 성인이 돼도 매일 반복하고 있다. 평일엔 하루 8시간, 주말은 24시간 내내 어머니 간병, 집안일, 아르바이트에 매달린다.

가족돌봄아동에게 절망적인 건 돌봄의 굴레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유전병 어머니를 챙기며 간도 기증한 새벽씨는 “중학교 때 잠시 집을 떠난 동안 엄마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그때 내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이 크면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는 새벽씨, 그리고 돌봄 15년 차인 26세 ‘윤서’(가명)씨를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큰일을 겪다 보니 힘든 적이 많았고, 인생의 시계도 여전히 멈춰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주 쓰러지는 어머니와 열두살 어린 동생을 돌보는 윤서씨는 “대학생 때 같은 일을 겪었다면 조금 나왔겠지만, 초등학생 때 돌봄을 시작해 심리적 압박감 등이 훨씬 컸다”면서 “내 삶이 벽처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꾸역꾸역 버텼다”고 털어놨다.

가족돌봄아동, 그들의 말말말

“돌봄은 끝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섭게 다가와, 기간 길어질수록 절체”
21세 새벽(가명)

“특별한 소망 없어, 누가 집안일 대신 해주거나 동생 챙겨줬으면”
초4 김준희(가명)

“가족돌봄 했어도 돌봄인지 몰라, 삶이 벽처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26세 윤서(가명)

교우 관계, 진로 준비에서도 남들과 간격이 벌어졌다. 새벽씨는 “엄마가 입원하면 병원에 머물러야 하니 출석 문

제가 컸다. 늘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린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꿈아 스스로 친구들과 (연락을) 차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힘든 현실에 체념·분노를 느끼면서도 돌봄을 ‘내 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주변의 시선도 영향을 미쳤다. 윤서씨는 “얼마 전까지 가족돌봄이란 개념 자체를 몰랐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주변에서도 ‘네가 가장이니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승현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은 “효자·효녀로 대표되듯 국가가 아닌 가족의 돌봄을 당연시하는 사회 인식이 아동에게 큰 부담”이라

고 짚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미래’란 단어가 아니다. 새벽씨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두 청년 모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벽씨는 “그나마 난 기초생활수급 가구이지만 수급 대상이 아니거나 무슨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학창 시절 돈을 아끼려고 스마트폰을 없애고 학원도 끊었다는 윤서씨는 “기초수급 가구라도 생필품을 사면 남는 게 없다. 의식주 비용이 제대로 지원되면 심리적 어려움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채혜선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인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및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74 Hampton Hill Ct, McLean, VA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맥클린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피를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어 집 Renovation 했음	1.25M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마켓에 내 놓은 날 좋은 오피 받아 바로 계약. 오피하우스 위스, 셀러 So Happy.	1.2M
Fairfax, VA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신있음	\$850K
10** Salt Meadow, McLean, VA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들먼트 완료	\$2.8M
McLean, VA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다니 바로 구입. 바로 3년 렌트 연결. 1/3/2025 세들먼트	\$900K
McLean, VA	계약 후 10일 이내 세들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하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900K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McLean, VA	3년	집 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관심없이 바로 렌트. 구입/세들트 완료 에이전트 보러만 믿고 강. 렌트 후자를 집 사고 싶은 분 연락바람. 주택권이 좋아할 만한 집 구입 후 바로 장기렌트 연결 자신있음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McLean, VA	3년	주재원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첨단기술 인력, 성과 보상 전제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적합

근로시간제도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라는 규정은 노동의 규범을 만들었다. 따라서 근로시간제도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변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비대면 회의 기술이 5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물리적 사무공간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근로시간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경영·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판이 무색하게도 우리의 근로시간제도는 그동안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고 최근에는 오히려 주52시간제라는 경직성에 경직성을 더하는 정책까지 덧붙여져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주52시간제의 운용상 경직성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2020년부터 역대 경제학술상 수상자와 학술지 편집위원, 전임학회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 5월의 주제가 주52시간제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9%가 업종과 직무, 경기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꼬집은 것이다. 그렇다면 주52시간제는 왜 경직적인 것인가.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주(週) 단위로 합산해, 합산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48시간 일하고 이번 주에 56시간을 일하면 불법이 된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매주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합산해 총량을 규제하는 나라는 최소한 선진국 중에는 없다. 독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6개월 혹은 24주 1일 평균 8시간이 기준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 총량의 상한을 두기 시작했지만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만 정하고 주 단위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노사가 합의하면 확대도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합

법인지 불법인지를 매주 따져야 하고 불법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 초과근로 총량 법적 제약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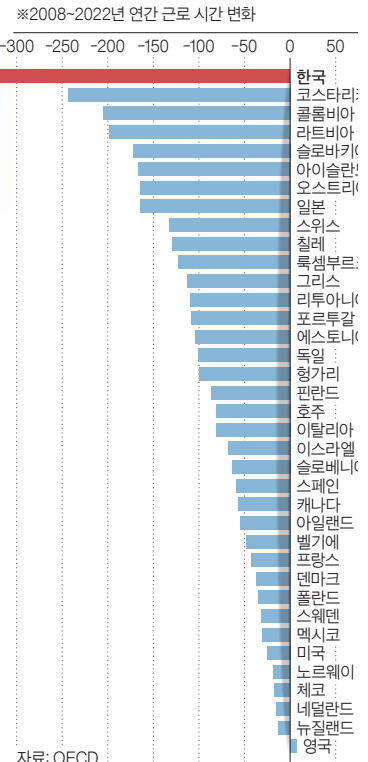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초과 근로의 총량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초과 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사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일본은 '고고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등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나오지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욕조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물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한다. 창의적 업무에 있어서는 일의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고 근로와 여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언제 어디서 "우레카"(내가 알아냈다)를 외치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애를 써서 측정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유인도 없다. 이들의 업무 성과가 근로시간과 상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같은 소위 '영덩이 고과'는 이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척도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일 잘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이 당연하다. 성과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면 일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재량에 맡겨도 된다. 느리지만 꼼꼼하게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원이 있다면 그러한 기여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는 무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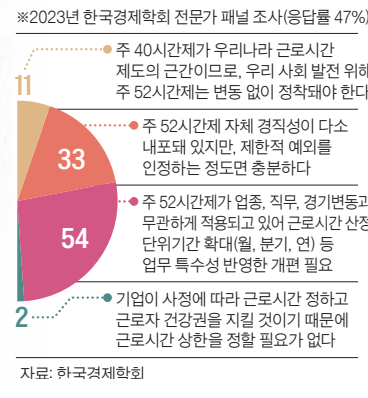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듯이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52시간제의 운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고숙련 고급 기술개발 인력에 대



OECD 국가보다 근로시간 감소 폭 더 큰 한국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인식은



서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근로시간 제도와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들에게는 근로시간보다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한 유연하고 재량과 선택의 폭이 큰 근로시간 제도가 적합하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글이 왜 자신의 사업장을 '캠퍼스'라고 부르고 카페와 수영장을 두고 있는지, 왜 직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일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의 유연화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우선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더라도 주52시간제의 근원적 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의 핵심은 일주일 산정 단위에 있다. 따라서 산정 단위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1

년 근로시간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52시간 유연화, 총량에는 영향 없어

또한 기술개발 인력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기업체에 속하는 과학기술 인력은 약 4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 중에서 첨단분야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인력은 5%라고 어렵다면 대략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들이 항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원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7년 기준 포괄적으로 대졸 이상 학력 근로자 전체로 보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비중은 3.6% 수준이었다. 고급 기술개발 인력은 저숙련근로자에 비해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이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있어 사

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불이익을 볼 위험이 낮다. 그러나 당연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 근로처럼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최대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사내병원과 휴게실과 같은 건강관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근로자 자신의 신중한 선택과 직속 상관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도 해야 한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에 출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들 핵심인력은 믿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성장 원동력이다. 10년 후 우리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경쟁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성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수

주52시간제의 유연화가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역행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있는 미국과 독일, 일본의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근로시간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필수요건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에 비하면 길지만 절대적 감소 폭이나 속도로 보자면 가장 빠르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나라다.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는 소득이 상승하면서 여가의 가치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관측된 추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짧은 근로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인강형 로봇, 일명 휴머노이드가 중국 어느 도시의 북적이는 시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에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매매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인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임대 비엔나 켈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탐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마흔살’ 이준석 “케네디처럼 세대교체” ... 대선 출마 선언

(대선 출마 자격)

홍대 앞 회견... “퍼스트 펙킨 될 것”
기존 정치권은 ‘과거 세력’ 규정
단일화엔 “끝까지 간다” 선 고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2일 서울 홍대 인근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펙킨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1985년 3월생으로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한 달 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만 40세’가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펙킨이 되겠다고 선언한다”며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 케네디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규정한 “지금의 왼쪽과 오른쪽 경계는 무의미해졌다. 철 지난 노래를 잊바

자로 부르는 두 세력을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선에 나설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제 나이가 올해 마흔이 됐다”며 출마 뜻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대선 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의원 측은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대선 캠프 사무실은 수도권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차릴 계획이다. 현재 18명 규모의 특보단도 점차 확대 중이다. 다음 달 13일엔 이 의원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 (JUNSTONE YEAR ONE)’도 개봉한다. 영화엔 이 의원의 2023년 국민의

힘 탈당 이후 이듬해 개혁신당 창당과 총선 당선 과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단일화 등을 통해 여권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이 의원을 꼽는 이가 많다. 다만 그는 이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다른 후보 중 지금까지 저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저는 끝까지 간다. 제 경험상 이 길이 기쁨을 많이 먹고 주유소도 들르고 하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지붕 두 가족’이란 지적을 받는 개혁신당 내홍은 이 의원의 숙제다. 지난달 31일엔 이 의원 측과 허은아 대표 측이 각각 최고위원을 따로 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 소환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김기정 기자

지역화폐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20조원 넘게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수가 학원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경남 김해시의 지역화폐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일반 교습학원(138억원)으로 지난해 총 사용액(726억원)의 19%에 해당한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69억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47억원) 등을 포함하면 학원에서만 전체의 41%가 쓰였다. 학원비에 이어 ‘식당’ 183억원(25.1%), ‘식자재 등 음식 관련 소비’ 76억원(10.5%), ‘스포츠시설 등 서비스업’ 63억원(8.6%), ‘내구재 소비’ 60억원(8.3%) 순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정작 음식점 같은 골목상권보다는 학원비 납부용으로 더 많이 쓰인 셈이다.

김해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중 19.6%(7285억원)가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같은 기간 식당 등 음식업점에서 사용된 금액(7047억원·18.9%)보다 많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지역화폐 어디서 많이 썼나

일반 교습학원	138억(19.1)
한식 음식점업	109억(15.1)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69억(9.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7억(6.5)
예술학원	38억(5.3)
식품소매업	36억(4.9)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32억(4.4)
기타 간이음식점업	28억(3.9)
의원	27억(3.7)
이용 및 미용업	20억(2.7)

*경남 김해시 2024년 기준, 총 사용액 726억원 단위: 원. ()안은 비중, %,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결제액의 29%(지난해 1~6월 기준)에 그쳤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역시 2023년 결제액의 23%인 9686억원이 학원비였다.

지역화폐는 통상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사는 식이다. 그 차액만큼 지자체나 국가가 예산으로 메운다.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가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원비는 상품권이 없어도 어차피 쓸 돈이라 사실상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2023년 9월 발행한 ‘지역화폐 정책 변화가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역시 학원이나 병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업종별로 캐시백(혜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발행하고 있다. 발행액도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 20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일부 사용처가 부적절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대략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역화폐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따진 연구는 거의 없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실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더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며 “애초에 지자체가 제각각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가 외식·숙박·관광 등 분야별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왕철휄 기자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반대하던 민주당 “수정 용의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하이트칼라 이그젠션)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가 기존 반대에서 ‘수정·보완’으로 변화하고 있다.

2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엔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고, 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장기 논의 과제’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예외 적용 반대’를 고수해 온 기존 입장에선 다소 물러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선 더 적극적인 기류가 읽혔다. 노동계 반발에도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실용주의 기조를 밝힌 지난달 23일 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에 정

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중점으로 담겨 있다. 여야는 이 점에선 이견이 없다. 다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다. 재계와 여당은 신제품 R&D를 위해 핵심 인력의 6개월~1년 집중 근무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에서 배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계와 민주당은 근로자 권리 준수를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반대해 왔다. 설사 예외 조항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몰고 온 파장을 언급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 적절하게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적었다.

윤지원·김원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황계실 571-239-6054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대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상업용 미장원렌트 \$3,300/1300sqft, 29/66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신속 지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알은척’과 ‘아는척’

분노범죄가 늘고 있다. 작은 시비가 폭행·방화·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편의점 주인이 단골인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않아 말다툼하다 화가나 가게에 불을 질렀다” 등이 전형적 사례다.

자신이 무시당해서라든가 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인 “아는 척하지 않아”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단골인 자신을 알은척하지 않아” “자신을 보고도 알은척하지 않아”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알은척하다’가 와야 바르다.

‘아는 척하다(=체하다)’는 이러한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 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동사 ‘알다’ 뒤에 알맞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인 ‘척하다(=체하다)’가 이어진 형태다. 단언어가 아니므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면접관의 질문에 무척대고 알은척하지 말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솔직함도 필요하다’ “잘 모르면서 알은척하다가 큰코다친다”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알은척하다’가 ‘알은척하지’ ‘알은척하다’는 ‘아는 척하다’가 ‘아는 척하지’ ‘아는 척하다’가 ‘아는 척하다’로 고쳐야 바르다.

입말에서 ‘알은척하다’와 ‘아는 척하다’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분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 정책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남성간 진한 우정 유대)를 재개, 어느방향으로 뻗지 예상키 어렵다. 그는지난 1월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키 위해 많은 돈을 썼고 3만8천 명의 생명을 잃었으면서도 1999년 “어리석게도 파나마에 넘겨주었다”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으로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그 밖에도 그는 “남부국경(멕시코-미국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고 “모든 불법이민은 즉시 중단 될 것”이라며 “체포 후 석방관행을 종식시킬 것”라고 못박았다.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 의지 표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선언은 오늘날 적지 않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입소스(Ipsos)가 지난 1월2-10일 사이 실시 한 여론조사가 그런 경향을 반영한다. NYT(국제판)가 1월20일 보도 한 NYT-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87%는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지지했고 46%는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증가를 환영하였다.

또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다수가 트럼프의 1기 재임시절 보다 훨씬 더 ‘미국 우선주의’ 를 지지함으로써 고립주의로 기울었음을 반영한다. 그 밖에도 미국인 다수는 미국 정부가 해외 개입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심각한 국내문제를 등한시 한다고 했다. 미국인들이 내향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민주당원 3분의 2는 워싱턴 정부가 부패했다고 보며 공화당 80%는 정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힘센 사람들을 위해 복무한다고 했다. NYT-Ipsos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미국인들은 해외 개입보다는 고립주의와 불법이민 추방을 원하며 자국 산업보호와 일자리를 위해 높은 관세 부과를 환영한다.

그에 반해 카밀라 해리스는 세계2차대전 이후 지켜온 미국의 국 제주의와 이민자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등을 고수하다 낙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보수적 포 폴리즘의 승리였고 공화당이 상? 하양원을 장악하게 된 것도 그의 보수적 포 폴리즘에 편승한 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높은 관세는 미국에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무역전쟁을 야기, 국제 무역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의 ‘미국 우선 주의’와 우방에 대한 방위비분담 인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를 끌어내린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자유가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돈만 아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돈(錢) 트럼프’로 경멸된다. 여기에 트럼프의 보수적 포 폴리즘은 명암 양면성을 지닌다.

트럼프 장담대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것”인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언대

바다 사자들의 독백

우리는 시라이언이라 불리는 물개입니다. 본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관리인에게 우리를 잘 보호하도록 임시로 위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는 관리인의 폭력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창조주 하느님께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중의 하나가 처참히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무참히 살해 당했는지 우리는 영문을 모릅니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관리인 어부의 밤손갈을 빼앗는다고 분풀이를 했다는군요.

하느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들은 우리 물개들을 잡아서 기름을 짜내어 영양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것도 부족해 우리 생식기까지 탐냅니다. 멸종될 뻔 했던 우리 자연보호 운동가들 덕분에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끼니만 채우면 물 밖으로 나와 따뜻한 햇빛에 일광욕을 즐기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플라스틱인지 뭔지 하는 쓰레기 때문에 내장이 터져서 죽어 간다고 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인 하느님, 도와주세요. 멋지게 만드신 대양의 참 모습을 파괴와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저희 물개들이 다른 물고기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인간 관리인들이 인정해 주면 오죽 좋으면 그렇지 않은 현실이 염려 됩니다.

지구의 속사정을 알아채는 일은 우리 물개들이 인간 관리인 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라고 하는데, 능력으로 부르기엔 우리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요. 자연에 동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경외심이었습니 다.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물개들의 눈에도 물 밖의 세상이 험악

하게 보입니다. 아니,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불뿔이 튀어 바다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인간 관리인들의 사정이 딱해 보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거주지를 보존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물고기들은 쓰레기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만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우리 동료를 때려 죽일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쇠신해야 하지 않나요.

지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것인지 우리들은 울화가 터집니다.

우리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지라 마음 같아서 는 일손을 보탬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는 바다를 벗어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이번은 모든 생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애 수필가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경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득요청이민
- 비자면경 및 연장
- 출국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제약해
- 국제투자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다국부거주/입국문제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역력

- 25년간 법학박사
- 미국 합동법률사무소-Offic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UNH Headquarters, Tokyo, Japan
- Korea Airline (KAL) 직원인사
- KOC (Korea Council of Shipping Overseas) Member
- Republic of Panama-고문인사
- 아인, 부자, 삼일 기념인사

중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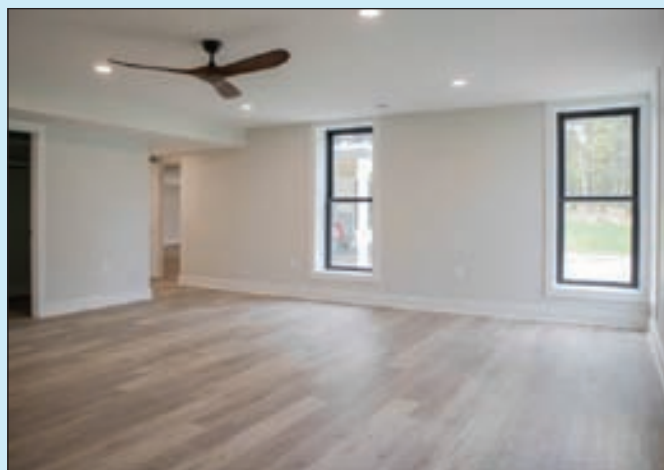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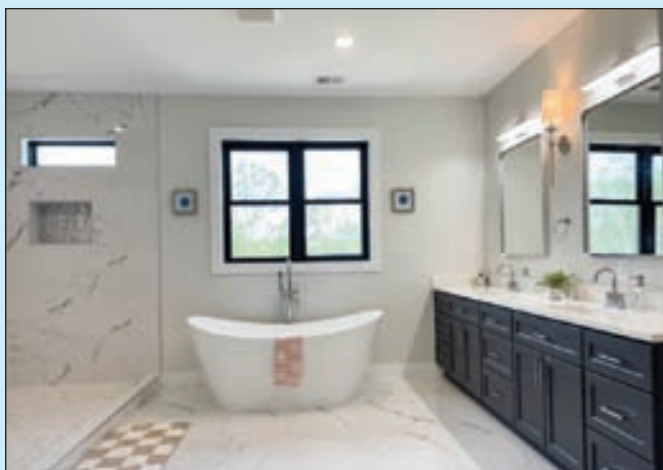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USCIS의 팬데믹 서명 정책 영구적으로 시행

▶문= 이민 혜택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새로운 서명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이제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와 문서에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스캔본, 팩스,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고 USCIS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명의 사본 및 스캔본을 허용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스캔본의 서명을 이민국 양식에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서명은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은 원본을 이용한 것이라면 복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서명 즉, 이미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서명은 ‘펜으로’ 서명할 때 직접 굵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펜으로 직접 굵은 것이라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개인 간의 접촉 때문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이민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된 것입니다. ▶문= 이 예외가 서명 외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이 예외는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모든 다른 양식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이 정책 변경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정책은 제출 시 원본 서명 요구를 제거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원본 서명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과 비효율성을 없앴습니다. 원본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서명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Q 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

가 제공하는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거나, 회사의 업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했다면, 이 교육이 면접 시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특정 자료를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회사가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회사의 자료로 활용했다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이를 사전에 동의했어도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 교육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육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이 전적으로 선택 사항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는 것이 직원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그 직원의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급 인턴십은 정부 승인 사항이고 승인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면접을 하면서 제공한 이러한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과금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질 경우 그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기타 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우리
유산 상속법 변호사

Q 어머니께서 남기신 예금을 동생이 무단으로 가져갔어요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였다. 동생은 자신이 어머니의 간병비와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출된 금액이 과도했으며 사용 내역도 불분명했다. 나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정상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단 인출 사실 파악: 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동생이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간병비나 상속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수집하여 과도하게 인출된 금액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2) 반환 청구 금액 산정: 상속세 납부 등 정당한 비용은 인정하되,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내역을 파악하고, 실제로 필요했던 비용과 무단 인출된 금액을 구분하면, 어느 정도의 반환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당이득 입증: 어머니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동생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입증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주장하는 일부 상속세 대납 금액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의 과도하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볼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문=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무단 인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좌내역 분석, 사용내역 검증, 정당한 비용과 부당 인출 금액의 구분 등 다차원의 소송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국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2월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체력저하,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칩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에스터 펠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안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홍삼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울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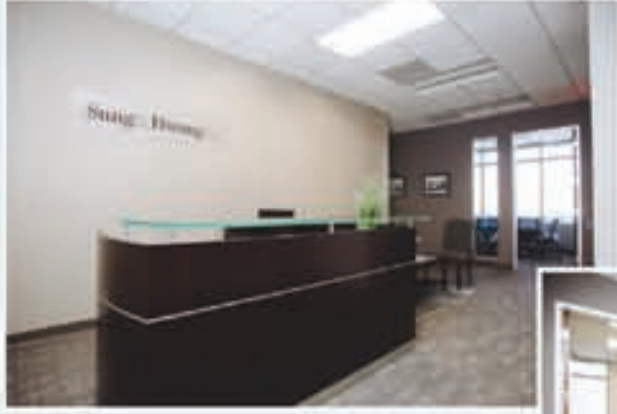
클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달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소금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Monday, February 3,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인구 줄여야 행복? 빌런 타노스와 맬서스가 놓친 것

(마블 코믹스)

2010년대 글로벌 영화계에서는 마블(Marvel) 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들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헐크, 토르 등 소위 '어벤저스(Avengers)'를 구성하는 초능력자들을 내세운 영화들이 차례차례 발표될 때마다 마블과 디즈니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2019년에는 그때까지 나온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함께 등장해 우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어벤저스: 엔드게임'이 발표되면서 시리즈가 일단락되었다.

당시 어벤저스의 인기가 워낙 대단해서 MCU(Marvel Cinematic Universe)라는 용어가 보편화할 정도였는데, 이것은 마블 영화들을 공통으로 묶어주는 세계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인 영화에 아이언맨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엔드게임'에서 슈퍼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것은 이 MCU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혼자서도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슈퍼히어로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 대적할 수 있는 악당이 과연 존재할까? MCU의 답은 '타노스'였다. 우주가 탄생할 때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생겨났고 이것이 각자 제자리에 있어야 세상 만물이 바르게 움직이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타노스가 이 스톤 여섯 개를 모두 손에 넣은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 중 절반을 없애기 위해서다. 타노스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우주의 시스템과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간, 너무 많은 생명이 있다. 따라서 생명을 절반으로 줄여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보자는 착상을 한 것이다. 수단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탈이지, 지향하는 바 자체는 송고한(?) 악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런 발상, 뭔가 상

당히 익숙하지 않은가.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가족계획 캠페인을 강력하게 벌일 때 온 국민의 마음 속에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 '잘살아보세'가 큰 공감을 얻던 가난한 시절, 1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본자에 있는 국민소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율을 낮춰 분모에 있는 머릿수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 오죽하면 '뺏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과격한 표어가 등장했을까.

근대경제학이 태동할 무렵 이런 생각을 체계화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가 토머스 맬서스다. 그가 1798년에 초판을 내놓은 『인구론』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높아진다. 뭔가 혁명적이고 엄청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수확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수준일 것이다. 그래프도 그러다면 선형으로 나타나는 1차함수다. 그런데 인구는, 부부 한 쌍이 아이 넷을 낳으면 한 세대만에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결국 누군가는 굶어죽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이 줄어든다면,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



1 경제학자이자 성직자였던 토머스 맬서스. 농업생산성 향상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활여건은 장기적으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에 머문다는 인구론을 폈다. 2 '어벤저스' 시리즈의 악당 타노스. [사진 위키백과·영화사]

서는 식량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또다시 인구가 식량보다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여건은 간신히 생존만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오늘날에도 자주 쓰이는 '생존 수준'(subsistence level)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했다.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 2면 '인구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 1면 '인구와 경제성장'에서 이어집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딱 생존에 필요한 만큼 보다 많아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맬서스는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는 오명을 얻는 데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그대로 물려받은 타노스는 맬서스의 21세기 마블판(版) 현신(現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노스, 생명 절반 없애야 한다 생각

맬서스의 인구론은 워낙 단순하면서도 논리가 강력해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그런데 20세기에 질소비료가 보급되고 영농의 기계화가 확산되면서 농업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결과, 우리가 '인구 폭발'을 걱정할 만큼 전 세계 인구가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1950년 무렵 25억 명 정도였던 세계 인구가 20세기말에 60억 명까지 불어났었다.

이에 따라 맬서스에 대한 관심도 차츰 약해졌고, 결국 마이클 크레머(사 진)라는 경제학자가 나서서 정식으로 맬서스에게 반기를 들었다. 맬서스 이론이 맞다면,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져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는 반대로 인구증가율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크레머가 자료를 보니 그 반대였던 것이다! 크레머의 1993년 논문에 따르면, 인류의 아주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은 인구 크기에 비례한다. 즉,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인구가 더 빠르게 늘고 경제 성장도 더 빨랐다는 얘기다.

크레머는 이 현상의 원인을 기술혁신에서 찾았다. 생산기술을 한 단계 확 높일 만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자나 기술자, 아주 보기드문 천재, 이런 사람들인데,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나 지식은 식량과 달라서, 한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지식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다투어 없어지지 않는다.

헨리 포드가 20세기 초에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은 21세기 인 지금도 대부분의 제조업 공정에서 쓰이고, 이 지식을 10억 명이 사용하든 80억 명이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혁신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혁신가가 태어날 확률은 인구가 많아지면 점점 높아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기술 혁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산업, 인공지능 등은 20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흔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의 존재,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투자자들, 세계 최고의 연구환경을 갖춘 대학의 우수성 등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크레머에 따르면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다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쉽게 말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확률 자체가 한국의 여섯 배라는 얘기다.

한국도 20세기 후반 산아제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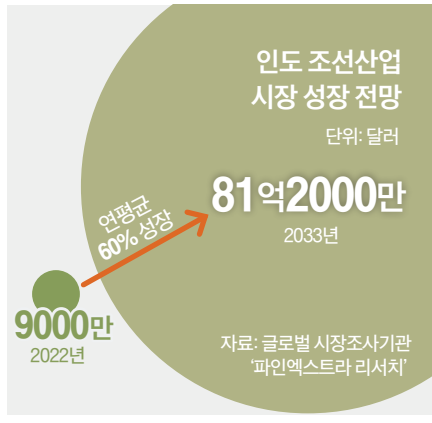
그러면 크레머가 맬서스 이론을 완전히 뒤집은 것일까. 타노스가 나타났을 때 어벤저스가 달려가서 사생결단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크레머가 만나서 조용히 설득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맬서스와 크레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아주 장기적인 확률에 대한 이론들이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인구 대국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해 오긴 했지만, 인구가 꽤 많으면서도 성장이 아주 저조한 국가도 여럿 있다.

또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농업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흑사병이나 세계대전 등으로 인구가 감소한 다음에는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곤 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는 맬서스와 크레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맬서스 식의 비판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먹일 일이 많아졌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천재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기뻐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경제학은 더이상 우울한 학문 이 아니다.

연 6% 경제성장률 '기회의 땅' 인도 철강·조선업계 노크

관심 커지는 인도 시장

포스코, 현지 1위 철강사 손잡아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
조선업 2033년엔 12조로 성장 예측
부족한 인프라·숙련공 확보는 과제



2047년 세계 5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파인엑스트라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조선산업은 지난 2022년 9000만 달러(1325억7000만원) 규모에서 오는 2033년까지 81억2000만 달러(11조9550억7600만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부족한 인프라다. 인도에는 현재 조선소 28곳이 있는데 대부분 중소형 선박만 건조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부족한 조선소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들과 협력을 타진 중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잇달아 방문해 현지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등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사들은 인도 진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인도의 값싼 인건비는 장점이지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투자 효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한진중공업이 2004년 인도에 진출해 직접 완공한 수빅조선소는 현지 비숙련 노동자들이 만든 선박에서 품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남기고 2022년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의 경우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한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우 기자

14억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성장 시장 인도를 향해 한국 제조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다. 현지화 전략으로 안착한 완성차-가전 업계에 이어 철강·조선업체들도 잇따라 '기회의 땅' 인도 진출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오른 인도는 내년쯤 독일(4위)도 추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데, 인도 정부가 '메이크인인디아(인도에서 생산)'를 강조하며 제조 기업들을 유치하며 6%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중 인도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포스코다. 포스코그룹은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손잡고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비롯해 2차전지소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JSW그룹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포스코그룹의 인도 도전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2005년 이후 네 차례나 매년 인도 정부 및 국영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진출을 준비했지만,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인도 중앙 정부가 투자 지원 약속을 어기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인도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 성장성 때문이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 1억9000만 톤(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과 JSW그룹은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관제철소는 쇳물을 뽑

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선-제강 공정과 쇳물을 압축해 쇠판(슬래브)을 만드는 압연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다. 포스코는 우선 인도 오디샤주 지역에 연산 500만 톤(t) 규모의 제철소를 짓고 이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인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있어 이번 사업 성공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2030년 세계 10위,

한국 조선업계, LNG선 호황... 중국 추격세 심상찮네

조선업계가 '수퍼 사이클(장기 호황)'을 맞아 실적 고공행진 중이다. 하지만 매출 효자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경쟁에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다시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조선3사는 13년만에 동반 흑자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4년만에 흑자(2379억원) 전환에 성공했고, 다음달 초 지난해 연간 실적을 공시하는 HD한국조선해양도 전년 영업이익(2823억원)의 5배를, 삼성중공업도 전

년(2333억원)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애프텐가이드).

도크(선박 생산시설)가 한정된 조선사들은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LNG선은 대당 2억6000만 달러(약 3700억원)로,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생산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문제는 LNG선을 싣쓸이하던 국내 조선사들을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배슬스밸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7%였던 한국의 LNG선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중국(38%, 41척) 영향으로 62%(68척)까지 밀렸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조선업을 육성하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LNG 수출을 재개하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늘고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NG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중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발주 감소에 대비해 선종 다양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오삼권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안정적인 국내 주식 유지하며 변동성 관망 필요

2025년의 투자 방향성

올해 들어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변동성도 높아지는 듯하다. 본격 조정 하락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환경이 불투명할수록 한발 뒤로 물러나 길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의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실적 성장과 경제 회복력이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지난 2년 만큼의 수익은 어렵지만 올해도 완만한 수익이 예상된다.

2024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였다. 특히 국내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며 S&P500 지수가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제 주식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했다. 선진국 시장을 나타내는 MSCI EAFE 지수는 4% 상승했고, 신흥국 시장은 7.5%의 더 강한 성과를 냈다. 한편, 소형주는 러셀2000 지수를 기준으로 11%를 약간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이 완전히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4월에는 약 5%의 조정이 있었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8.5%에 달하는 더 큰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변동성은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된 한 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외부 요인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보여준다.

특히 2024년의 대부분의 상승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주식 가격 상승이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하려는 심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호한 국내 경제, 금리 인하, 그리고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주요 원인이었다.

▶ 지난해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

2024년 시장의 성장은 투자 심리와 밸류에이션 확장에 크게 의존했다. 기

업 실적이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시장 상승의 핵심 동력은 아니었다. 투자자들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기업 친화 정책이 기업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이전보다 낮은 금리는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도록 했다. 한편, 대형 성장주가 시장의 주요 수익을 이끌며 전체 지수 상승에 비해 이상의 기여를 했다.

▶ 올해도 완만한 성장세 전망

2025년은 긍정적인 수익이 예상되지만, 지난 2년과 같은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 성장이 주요 시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여전히 강한 소비 지출과 가계 자산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책 변화나 경제 데이터에 대한 시장 민감도를 높여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금 감면이 시행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키고 투자 심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범위와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리 역시 중요한 변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하반기에 금

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기대보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상반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2025년 투자 전략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은 강력한 기업 펀더멘털(Fundamental)과 경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여전히 선호되는 자산이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추가적인 자본 성장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약한 글로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국제 주식

은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는 2025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은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규제 완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실행 시점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몇 주 동안의 시장은 세금 정책과 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치 조정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의 민감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25년은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혼재된 해가 될 것이다. 2024년의 강력한 시장 성장은 주로 밸류에이션 확장에 의존했으며, 이는 2025년의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는 더 완만한 수익률이 예상되지만, 기업 실적 성장과 경제 회복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은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의 견고함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기업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해다.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적인 정책 지원은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단기적 변동성 요인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양호한 경기와 정책적 요소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각자의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걸맞은 장기적인 운용전략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역시 성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en Choi,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제과점 자리, Beer and Wine Shop, 자동차 메카닉샵, 리커, MD 콩고메리카운티, 컴퓨터 수리점, K-HOT DOG 집, 상가 임대수입, 창고 임대, 스시 식당.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401(k) 변경

60~63세 '수퍼 캐치업' 도입해 확대

2025년 SECURE Act 2.0 법안으로 401(k) 및 기업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기회가 확대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조기 은퇴 준비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401(k) 플랜 운영에서 기업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ERISA법에 따라 플랜 참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업무(마감일 준수), 주기적 업무(플랜 모니터링, 투자 검토), 기록 관리(참여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기여 한도 관리, 자동가입 절차 이행, 정확한

기록 보관 등 수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1. 2025년 401(k)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5년부터 401(k) 납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납입 한도는 500달러 증가한 2만3500달러가 되며, 여기에 연령대별 추가 납입 기회가 주어진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더할 수 있어 총 3만1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63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수퍼 캐치업' 제도다. 이들은 1만1250달러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어 연간 최대 3만475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겐 마지막 자산형

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가 부족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 수단 이 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플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플랜의 연간 총 기여 한도가 7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직원의 기본 기여금(2만3500달러)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7500달러의 추가 납입(Catch-up)이 가능해 총 7만7500달러까지, 60~63세 근로자는 더 큰 폭의 Catch-up(1만1250달러)이 허용되어 최대 8만12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자동가입 제도 의무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가입 제도는 401(k)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모든 플랜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탈퇴(Opt-Out) 의사를 밝혀야 한다. 초기

납부율은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상향된다. 다만 직원은 언제든지 납부율을 조정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4. 은퇴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DOL은 2025년부터 Retirement Savings Lost and Found Database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Login.gov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 DOL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정보와 플랜 관리자 연락처를 수집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법 상식



윤 주 호
CPA

S-법인과 LLC 세금보고

**S-법인, 배당에 사회보장세 면세로 절세
LLC, 매년 총매출 기준 수수료 부과 유의**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족의 경우 손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

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손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척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UNDER CONTRACT</p> <p>Marriottsville</p> <p>\$665,000 타운홈, 방3, 화4</p>	<p>SOLD</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SOLD</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p>SOLD in 3 Days</p> <p>Perry Hall</p> <p>\$419,000 싱글홈, 방3, 화2</p>
<p>SOLD</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p>SOLD</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p>SOLD</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SOLD</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Hanover</p> <p>\$550,000 타운홈, 방3, 화3.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lumbia</p> <p>월 \$3,100 타운홈 방5, 화4</p>	<p>Odenton</p> <p>월 \$3,000 타운홈 방4, 화4</p>	<p>COMING SOON</p> <p>Bowie</p> <p>월 \$2,800 타운홈 방3, 화2</p>	<p>COMING SOON</p> <p>Pasadena</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2.5</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지금까지 백 년, 양자가 진동하는 세계

학생 시절 양자역학 수업을 듣다 보면 공부를 하는 중인지 아니면 그리스로마 신화나 삼국지연의를 보는 것인지 헷갈리곤 했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드브로이·슈뢰딩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위대한 과학자들의 영웅담에 매료되었다. (젯밤에 정신 팔렸으니 시험성적은 좋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런 신화적인 시대와 지금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지?”

이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이야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시대, 다시 말해 1920년대 중반의 양자역학 형성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거의 백 년 사이에 물리학의 폭과 깊이 그리고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신화시대와 지금을 잇는 거대한 그물망에서 한 주제나 한 시대를 골라내서 쓴 좋은 이야기는 여럿 있다. 이번 세기 들어서는 우리말로도 이강영의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사이언스북스)처럼 어디에 내놓아도 뿌듯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훌륭한 이야기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이는지는 웬만한 과학 애호가도, 그 어떤 과학자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

데이비드 카이저의 『양자역학의 역사』는 그런 갈증을 풀어가는 열쇠 노릇을 한다. 언뜻 양자역학 통사라는 인상을 주는 우리말 제목과 달리, 통사도 아니고 신화시대 이야기를 반복하지도 않는다. 원제(Quantum Legacies)를 풀이하자면 양자역학의 유산들이 현재까지 풀려 나온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신화시대 이후 몇몇 역사적 덩어리(양자, 즉 Quantum)들이 물리학의 지금



1970년대 후반 입자물리학자 벨 피치가 학술지 『피지컬 리뷰』를 10년 단위로 쌓은 모습. 급증한 두께가 보인다.

[사진 동아사이]

신화적 시대 막내 과학자부터 21세기 들어 중력과 탐지까지 양자역학 형성 이후 학계 흐름 물리학 바깥까지 아울러 조명



양자역학의 역사
데이비드 카이저 지음
조은영 옮김
동아시아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자 카이저는 미국 MIT의 현역 물리학자 겸 역사가인데, 평이한 문체를 구사하다가 느닷없이 묘한 중의 법 문구를 던지곤 한다.

모두 17개의 길지 않은 에세이로 그런 덩어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신화시대의 마지막 등장인물인 폴 디랙(특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고, 반물질의 존재를 예언했다)부터 급세기 중력과 탐지까지를 다룬다. 마지막 18장은 스티븐 호킹을 기리는 짙막한 회고담이다. 이 책에서 가장 ‘학술적인

글인 부록은 미국 내 물리학 박사 학위 취득자 수 증감(1970년대와 1990년대 초, 두 번의 피크가 있었다)이 물리학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한다.

에세이들은 대체로 신화시대 이후 중요한 주제나 장면에 물리학 내적 논리와 물리학 바깥의 사정이 엮여서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예컨대 중성미자의 진동을 발견한 폰테코르보의 기이한 인생사는 기초 연구와 핵무기 개발 사이를, 또 미국과 소련 사이를 진동했다. 상식을 깨는 내용과 지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예산

을 아껴야 꾸준히 연구할 수 있을까? 외계문명의 전파신호를 탐색해보자는 SETI 프로젝트는 비용을 아껴서 기존 시설을 활용했음에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소액에 불과한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다. 신규 건설 예산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로비할 건설 하청업자들이 없었던 점도 작용했다.

또, 히피 문화나 신비주의가 반물리학자일까? 1970년대 중반 히피 문화나 동양사상 열풍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물리학계를 장악해가던 풍조-물리학은 더 정밀한 계산을 추구하는 분야라는 생각-를 무너뜨리고 물리학에는 뭔가 심오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부활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단, 신비주의나 동양사상이 직접 물리학 내용에 기여한다는 환상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혀졌다.)

물리학 바깥과 내부를 이렇게 엮어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믿어도 될까 싶을 수도 있다. 믿어도 된다. 노년의 물리학자가 훌륭한 역사서를 남기는 일은 종종 있고, 물리학자 연구자가 물리학 연구논문을 쓰는 일은 아주 가끔 있지만, 젊어서 두 분야를 복수전공해서 각각 학위를 받고 꾸준히 두 분야 모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는 카이저가 거의 유일하다. 역사로서도 물리해설로서도 신뢰가 보장된 셈이다. 여러 물리학 서적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즐겁게 뒤적일 지난 백 년의 약도이고,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에게는 “아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라며 추억과 악몽을 즐겁게 되새길해볼 기회로도 좋다.

이관수 과학저술가

‘제때’보다 ‘만일’ 대비 세계 공급망의 재편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세계의 공장이라고 한 중국 공장들이 당국의 폐쇄 명령에 따라 대거 멈춰 섰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중국 산업의 대혼란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컴퓨터 칩의 80~90%를 생산했던 대만 TSMC는 코로나 여파로 주문이 급감하자 칩 생산을 대폭 줄였다. 그러나 자동차 구입은 오히려 폭증했다. 사람들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때는 이미 늦었다. 세계는 심각한 칩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한 5년 전 모습이다. 인력난과 원자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다 컨테이너 공급의 고갈, 항구의 교통 체증, 화물차 기사 부족 등 물류대란이 겹쳐 공급망 마

비는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는 이전 수십 년에 걸쳐 누적돼 온 공급망 취약성의 가면을 벗겨 낸 것뿐이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경제전문기자 출신인 피터 그넷이 지은 『공급망 붕괴의 시대』는 반도체 칩부터 의약품 원료,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허술함을 정교하게 파헤쳤다. 이 책은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 허브로 급부상하게 된 이야기부터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로 공급망이 일시에 무너졌다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까지 세계 경제현황 곳곳을 누비며 취재한 내용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냈다. 공급망 붕괴 현상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가

득 차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생산대부분을 한 나라, 즉 중국에 맡기면서 생긴 함정에 빠졌다. 공장들이 효율을 중시하면서 최소한의 부품과 원자재만을 유지하는 ‘적기공급생산방식’ ‘린(lean) 생산’ 도 위기 시에 공급망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세계 경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팬데믹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 공장에 의존해 오던 글로벌 기업들은 차츰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국에 생산 기지를 두는 리쇼어링, 대양 건너가 아니라 바로 이웃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5% 감소했다. 적기공급(Just in Time) 대신 충분한 원자재 확보를 통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식(Just in Cas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한국산 세탁기가 번창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 한국 기업들은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은 공급망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과거 분석서도 되지만 동시에 미래 예언서이기도 하다.

한경한 자유기고자

공급망 붕괴의 시대
피터 S 그넷 지음
장용원 옮김
세종서적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리미엄 대상 수상

빌페이지 토요타와 함께 2025 새해도 힘차게 달려요.

신차 · 중고차 신년맞이 세일

www.BillpageToyota.com

빌페이지 토요타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Bankrupt하신 분
- Foreclosure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

“광 김과 함께하면 차량 구매가 편안해집니다.”

Google Reviews 4.9/5

- 제니퍼: 첫 차를 구입했는데 광 김이 모든 것을 도와줘서요. 정말 편하고 만족스러웠어요.
- 마리아: 2.5개월만에 원하던 미니밴을 받았습니니다. 모든게 만족스러웠고 다시 방문할거예요.
- 한: 2025년 캠리를 구입했어요. 광 김의 고객서비스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니다.
- 라: 중고차였는데도 새차처럼 좋았어요. 광 김이 모든 과정을 부드럽고 빠르게 도와줘요.

실제 고객님들이 보았습니다.

✓친절한 상담, 맞춤형 옵션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고객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중고차 특선 세일]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다량의 중고차 보유]

“원하시는 예산과 스타일의 중고차를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 드립니다!”

2021 Toyota Corolla Hybrid Sale Price \$19,147 Mileage: 73,271 Stock#: P8228	2020 Toyota C-HR LE Sale Price \$21,285 Mileage: 37,933 Stock#: P8152A	2021 Toyota Prius LE Hybrid Sale Price \$22,770 Mileage: 30,456 Stock#: P8242	2023 Toyota Venza LE Sale Price \$27,985 Mileage: 49,679 Stock#: P8157A	2021 Toyota RAV4 Hybrid Sale Price \$29,132 Mileage: 32,112 Stock#: P8229	2016 Honda CR-V EX-L Sale Price \$18,500 Mileage: 67,689 Stock#: P8108	2015 Toyota Sienna Sale Price \$19,334 Mileage: 71,898 Stock#: P8233	2020 Toyota Highlander Hybrid XLE AWD Sale Price \$33,434 Mileage: 65,966 Stock#: P8190	2022 Lexus ES 300h Sale Price \$32,500 Mileage: 59,634 Stock#: P8245	2018 Toyota Camry SE Sale Price \$21,995 Mileage: 41,649 Stock#: P8221
---	---	--	--	--	---	---	--	---	---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리려 문의 주세요)

택스 아이디어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좋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페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금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매니징팀

김 광수
301.401.8685

제네랄 매니저 **자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아슬아슬 묘기 같았던 100년, 그래도 서커스는 계속될 것”

시화방조제에서부터 차는 줄 서서 대부도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다시 줄을 섰다. 설날. “명절에 귀한 시간을 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은 곳은 ‘동춘서커스’다.

설 차례를 지냈거나 안 지냈거나, 사람들은 바빠 달려와 서커스를 즐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부산과 거제에서, 가깝게는 방조제 바로 건너 시흥에서도 왔다. 400명을 헤아렸다.

동춘서커스는 우리나라 단 하나 남은 서커스단.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더는 생기지 않는다면 ‘마지막’이란 수식도 가능하다. 미국 작가 배리 롱이어의 공상과학소설 『서커스 월드』가 지구 마지막 서커스단의 다른 행성 불시착으로 시작한다면 박세환(81) 단장은 한국 마지막 서커스단의 연락처를 내내 시도하고 있다. 현실이다. 소설이 아니라.

막이 올랐다. 꿀꺽.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첫 공연인 ‘쌍철봉’을 오르는 남자 여덟 명의 몸짓은 기하학처럼 난해했고 공상과학소설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동춘서커스 자체가 소설 같다. 그래서 박 단장에게 물어봤다.

“태양의 서커스에 못지않은 공연 자부”

-100주년을 맞아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서커스는 스포츠입니다.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한국에 들어와 100년이 됐다는 건 잔칫날이 틀림없습니다.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풍파가 심했어요.”

-서커스가 스포츠입니까?
“네. 체조와 발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수직의 긴 철봉 두 개를 오르 내리는 단원들을 보십시오.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김연아가 어릴 때 피겨를 시작했듯 서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15세에 배워야 몸에 박히듯 기량이 나옵니다. 몸무게를 60kg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동양인들이 잘 합니다. 스포츠 중에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체득(體得)이다. 어느새 공연은 ‘공중 실크’로 옮겨졌다. 지상 8m에서 여성 곡예사가 긴 천에 온몸을 맡긴 채 거꾸로 매달렸다. 순간 허리에 말린 천을 풀었다. 여자는 사납게 떨어졌다. 왓! 으악! 객석에서 저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허벅지에 말린 천은

급제등을 걸어줬고 여자는 지상에 안착했다.

-편안하게만 오지는 않았군요. 풍파도 끊이지 않았을 듯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저희를 비껴갔겠습니까. 2009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요. 게다가 당시엔 신종 플루까지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찾아오질 않아 정부에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폐단 결정을 하고 그해 연말에 고별 공연까지 준비했죠. 그래도 사람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공연 1시간 전. 삼삼오오 모여 200명, 300명, 그리고 800명이 됐습니다. 그날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가서 큰돈 들어 놀 필요 없다. 동춘에서는 2만원만 내면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동춘이 안 망한다’고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항상 고마울 따름입니다.”

박 단장은 ‘정말’ 풍파 얘기도 했다. 2003년 태풍 메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동춘서커스는 전남 광양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태풍은 모든 걸 날려 보냈다. 인근의 경남 진주시가 도와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박 단장은 거듭 “고맙다”고 했다.

공연은 저글링으로 넘어갔다. 남자들이 인간탑을 쌓고 모자를 주고받았다. 여자들은 농구공을 돌렸고 누워서 긴 골대를 발재간으로 조절해 득점포를 쏘았다. 현란한 묘기에 관객들 사이에서는 탄성과 웃음이 전염됐다.

-동춘의 뜻은 뭔가요.
“동춘(東春)은 이 서커스단을 만든 박동수 선생의 호입니다. ‘봄은 동쪽에서 온다’는 뜻도 되죠.”

서커스는 원형(circle)을 뜻하는 라틴어 키르쿠스(circus)에서 유래했다. 1913년 일본 고사쿠라 서커스단이 부산에 들어오면서 서커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동춘서커스단은 1925년 우리나라 최초로 목포에서 창설됐다. 일본 서커스단에서 활동하던 박동수 선생이 독립해 30여 명의 조선인을 모아 만들었다. 1930년대 한반도에선 한국인이 운영하는 서커스단 10여 개를 포함해 30여 개의 서커스단이 전국을 누볐다. 박 단장에게도 운명처럼 동춘서커스가 찾아왔다.

-입단 계기가 있습니까.

“제 고향 경주에 동춘서커스가 왔어요. 고1 때였습니다. 까만 양복에 하얀 머플러를 두른 사회자에게 완전히 흠뻑 났죠. 잘 생겼고, 지금처럼 말만 잘하



박세환 동춘서커스 단장이 설날인 지난달 29일 대부도 상설극장에서 쌍철봉 묘기를 배경으로 “동춘은 계속된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상선 기자

는 게 아니라 춤도 잘 찾고 악기도 잘 다뤘습니다. 다재다능, 탤런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1963년 고



지난달 29일 동춘서커스 단원들이 천에 매달려 공중에서 춤추는 ‘에어리얼 로맨스’(위 사진)와 우산 9개는 발바닥, 2개는 양손으로 동시에 돌리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원에 있던 서커스단을 찾아갔어요.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선 내로라하던 노래 실력도 동춘서커스에선 빛이 바랬습니다. 주변에 더 잘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돈도 없었고 연습할 곳도 없었죠.”

-누가 동춘에 있었습니까.
“이제 일부 당사자들은 이름을 빼달라고 연락이 올지도 몰라요(웃음). 그때 코미디언 남성남·서영춘·백금녀, 탤런트 장항선 등이 있었죠.”

배우 허장강, 코미디언 남철·배삼룡·서영춘·이주일, 작곡가 이봉조, 가수 정훈희·하춘화 등도 동춘을 거쳐 갔다. 박 단장은 “동춘에 있던 사람들은 스타가 됐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이끈 게 서커스”라며 “연극 1시간, 쇼 1시간, 서커스 1시간, 여기에 창(唱)까지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따로 없었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엔 서커스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 동춘의 인물들이 대거 TV로 갔는데, 그래도 주연급이라면 오히려 별이와 대접이 좋았기 때문에 서커스에 남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저는 MBC 탤런트 2기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방송사에 가면 밀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동춘을 나

가겠습니까. 1972년부터 방영한 ‘여로’는 서커스에 치명타였어요. 서커스를 보러 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TV만 찾았습니다. TV가 먼저 태클을 걸어왔고, 이후 레저가 달려들었어요. 1980년대부터는 사람들이 살만해지면서 등산과 에어로빅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서커스를 잘 보지 않게 된 거죠.”

제대로 된 놀이가 없던 시절을 품었던 서커스는 이후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옆친데 닮친 격으로 동춘서커스는 1987년 태풍 셀마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파산 상태에 빠졌다.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잠시 다른 일(그는 “외도”라고 표현했다)을 하고 있던 박 단장은 “이거, 무조건 된다”며 동춘을 인수했다. 21세기까지 함께했던 한국국예예술단과 서울아트서커스는 2008년 폐업했고 동춘서커스 홀로 남았다.

대부도에 공연장, 스테이크까지 단원 40명 공연 중 피에로가 등장했다. “여기를 잘 보라”고 손짓을 하더니 책 속에서 돈다발을 꺼냈다. 광대는 사람들에게 던지려다 급히 거둬들였다. 대신 풍선을 나눠줬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은 안달이 났다. 관객들을 들었다, 놔다. 피에로의 역할이다. “공연의 완급 조절을 위한 등장 같다”고 하자 박 단장은 “그게 연출의 위력”이라고 답했다.

-‘명불허전, 명품공연’을 내세우시더군요.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못지않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태양의 서커스에 도전’이란 표현도 쓴 거고요. 제작비·무대시설·의상, 이런 것에서 밀려도 연출에선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2만5000원이면 볼 수 있으니 10만원짜리 태양의 서커스에 비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강릉단오제도 꼬박 참석하셨더라고요.
“30년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이 계속 옵니다. 타국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 1년이 지나면 궁금해서 또 오는 겁니다. 재밌거든요.”

-대부도에는 어떻게 자리를 마련했나요.
“2011년 안산시에서 찾아왔어요. 상생하자고요. 차들이 오가기만 하고 사람은 머무르지 않는 대부도를 살리자고요. 16m 빅탑 텐트를 치니 주민들이 반발했어요. 김홍준 기자

▶ 7면 ‘박세환 단장’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응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응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민법 전문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QR 코드

“퀴어? 어디에나 있죠... 다채로운 여성·남성상 보여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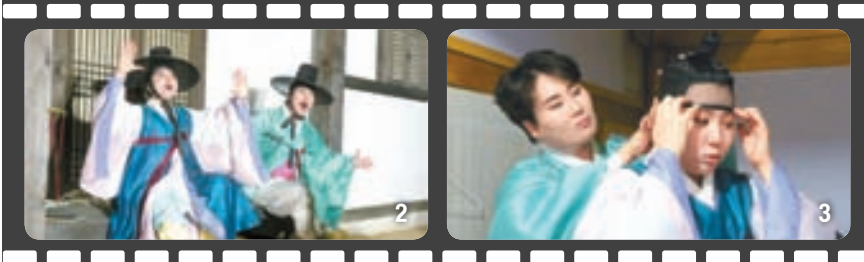
여기 ‘찐’ 남역이 있다. 지난해 드라마 ‘정년이’ 열풍으로 정은채·김태리·신예은 등의 여성국극 남역 연기가 화제가 된 터다. 여성국극이 1960년대 이후 쇠락한 탓에 실제 남역 배우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70대 이상이지만, 젊은 남역도 없진 않다. 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사업에 선정돼 대학로에서 무려 8일간 공연된 여성국극 ‘벼개가 된 사나히’는 ‘남역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무대였다.

이 공연을 만든 여성국극제작소 박수빈(41) 대표는 몇 안 되는 현역 남역 배우다. ‘레전드 삼마이(가부키 용어로 웃음을 담당하는 조역)’로 꼽히는 1세대 조영숙 선생 문화에서 후배 황지영(33) 공동대표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여성국극을 수련해온 ‘찐’ 3세대다. 3월 국극의 맥을 잇기 위한 두 사람의 고군분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여성국극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가 개봉한다. 2년간 이들과 동행하며 다큐를 찍은 유수연 감독은 “조영숙 선생 다큐를 찍으려 다 늘 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해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두 사람 고군분투 담은 다큐 ‘여성국극...’ 누구라도 그럴 것 같다. ‘벼개가 된 사나히’를 보면서 여성국극의 현재와 그 미래가 궁금해졌다. 연극계 중견 창작진 고연옥 작가와 구자혜 연출이 참여해 1960년대 국극을 배경으로 배우들의 ‘퀴어니스’를 전면에 내세운 무대는 이질감이 강했다. ‘니마이(남자 주인공 배역)’를 꿈꾸는 주인공이 국극에 적용되는 젠더 전형성과 퀴어로서의 정체성 사이 혼란을 겪는 스토리는 스승 조영숙 선생도 보러오지 않을 만큼 국극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남역은 더 남자답게, 여역은 더 여자답게”가 국극의 젠더 이분법이거든요. 선생님들 눈에는 예전에 ‘레전드 춘향전’에서 그린 주제적인 춘향이도

3월 개봉 여성국극 영화 두 주인공
오랜 세월 여성국극 수련 ‘찐’ 3세대 ‘레전드 춘향전’ 준비 여정 담아
“발성·노래·춤 등 남역 훈련 혹독”
“미래무형유산돼 창작장르 인정 꿈”



1 여성국극제작소 박수빈(왼쪽), 황지영 공동대표. 2, 3 3월 개봉할 영화 ‘여성국극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장면들. 김상선 기자, 사진 유수연

천인공노할 캐릭터였죠. 하지만 여성국극이 당대 동시대성을 표방한 것으로 봤을 때, 현시대에 문제제기할 만한 주제였다고 봐요. 국극이라서 퀴어를 다른 게 아니라, 퀴어는 지금 어디에나 있잖아요.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식을 국극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황) “양극화된 관객 반응에 매를 맞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연극계의 좋은 창작진을 만나서 협업한 덕에 대학로에 여성국극 깃발을 꽂았잖아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박)

여성국극의 ‘킵’이라면 ‘니마이’인데, 페미니즘 색채가 강한 창작진으로선 니마이가 추구해 온 비현실적 남성상이야말로 화두로 삼을 만한 소재였다. “이번엔 이분법을 해체했어요. 니마이가 오히려 하나도 빛나지 않고, 항상 뒤에 있으면서 누구 옆에 서주는 역할이죠. 근데 저해 늘 삼마이가 니마이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선 니마이인데, 다

른 사람의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 주기도 하고 옆에 서주기도 하고, 같이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 진짜 니마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해체한다면 뭐 하러 여성국극을 하느냐는 질문도 있어서 고민 중이에요. 두 가지 다 갖고 가고 싶거든요.”(박) “이상적인 여역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다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채로운 여성상, 남성상을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싶네요.”(황)

두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이들이 1·2세대 선배들을 모아 ‘여성국극 레전드 춘향전’을 준비할 때다. 각자 제각각인 어르신들을 어렵사리 한 자리에 모셔놓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영화도 ‘레전드 춘향전’을 올리기가 2년의 여정을 100회 촬영으로 따라간다. 집을 팔아 캠핑카를 타고 지방 행사장을 뛰는 한편, 어르신들을 일일이 섭외하고 후원자를 물색해 도움을 호소하면서 스승을 끔찍이 챙기는 모습까지, 짝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

이 필름에 묻어낸다. 놀라운 건 간간히 비치는 두 사람의 소리 장면이다. 요즘 스타 소리꾼들 못지않게 ‘짹짹’ 실력이 정통 국악계에서도 대성했을 법한데, 왜 험한 길을 가는 걸까.

“8살 때부터 선생님을 모셨어요. 국극을 그만두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국극이 그냥 저와 한몸 같아요. 저의 뿌리에 여성국극이 있으니 의무나 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요.”(황) “국극의 복합적 예술성은 이대로 사장되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소리·춤·연기는 물론 끼도 잘 부려야 하고 한국의 정서적인 멋도 있는데, 그걸 알리는 게 목표죠.”(박)

하지만 두 사람에겐 고민이 많았다. 유수연 감독도 “이들을 지켜보며 예술이란 한순간을 위해 99가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며, 젊은 예술가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안을 친구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 장르가 ‘여성국극’이라 더욱 그런 듯 했다. ‘정년이’ 열풍으로 주목도 받고, 지

난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선정돼 연수단원을 키우는 등 제도권에 입성했지만, ‘화려한 부활’을 논하기엔 구심점이 약해 보였다.

“지속가능성 위해 여러 시도·도전 계속”
“선생님들은 자신이 곧 여성국극이라고 생각하시니 새로운 시도를 탐탁지 않아 하세요. 저도 전통의 매력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원형 복원도 하고 싶지만, 이 시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없으니 여러 시도와 도전을 해야죠. 한 쪽으로만 갈 순 없는 것 같아요.”(박)

다행인 것은 이 와중에도 새로운 남역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벼개가 된 사나히’ 무대에도 이들이 양성한 두 명의 남역이 있었다.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던 ‘경력직’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선발된 7명의 연수단원이 혹독한 남역 훈련을 거쳤다. “국극의 쇠퇴 이유가 주인공 마케팅에만 올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성국극이 정말 어렵거든요. 발성부터 노래, 춤, 남자춤까지 내야 하나니까요. 1기 연수단원들도 교육 마치고 ‘화인턴’ 공연을 올릴 때 정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게 중요하죠.”(박)

‘정년이’ 열풍 이후 1·2세대들이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호소하는 명분도 ‘안정적인 계승’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극이 지자체와 협업으로 선정되는 미래무형유산에 걸맞는다는 생각이다. “제가 회초리를 맞췄지만, 전통의 카테고리에 넣기에 국극은 광범위한 장르라 생각해요. 그 당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한시대의 문화로 만들어간 큰 의미를 가졌으니까요. 창작 장르로 인정받아 여러 사업을 통해 가치를 증명한다면 훗날 자연스레 전통으로 계승되지 않을까요.”(박)

유주현 기자

▶ 6면 ‘박세환 단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젠 주변 식당도, 숙박업체도 좋아합니다. 제가 관객들이 오면 골고루 소개해 주거든요.”
100년. 한때 300명에 달했던 동춘은 지금은 극예사 28명에 스태프까지 합쳐도 40명이다. 곡예

사도 대부분 중국인. ‘중국어예단’이라고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박 단장은 “한국인 후계자가 없다”며 열은 한숨을 내뿔었다.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60년까지’ 시한을 정해 놓은 각각의 포스터가 있던데요.
“반어법이죠. 제각각인 건 결국 공연 시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동춘서커스는 쪽 계속됩니다. 돌고 돌듯 아슬아슬한 묘기 같지만요. 대부분 안, 저기 2km 밖에 서커스 아카데미와 전용극장 부지도 마련해 놔요. 한 해 15만 명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계죠. 관객 80%가 2030세대라는 게 방증입니다. 사랑과 성

원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생사륜’이었다. 삶과 죽음이 걸린 수레바퀴라는 뜻. 곡에서는 빙빙 도는 거대한 바퀴 안과 밖에서 아찔하게 뛰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홀로 남아 아슬아슬한 동춘의 모습이 떠올랐다.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 글로벌 프러미어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겨울 아이슬란드 오로라 사진 출사

★ 일시 : 2025년 3월 20일 ~ 3월 30일 ★

20년 경력의 전문 풍경 사진작가와 함께 환상적이며 우주의 마법과도 같은 오로라와 지구이면서도 또 다른 행성인 화성에 온듯함과 불과 열을 그리고 빙하와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 겨울의 설원, 설경의 드라마틱한 자연경관과 오로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6명 제한 (현재 3자리 남았습니다)
풍경사진작가님 (초보, 중급, 고급) 워크샵 병행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일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

문의: 703-341-7222 (메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세지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풍경사진에 대해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36세 듀오 새출발... “후배들아, 나이 굴레 떨쳐라”

89년생 뱀띠 축구선수 2인
 김기희, 미 시애틀 5년 만에 컴백
 “선수 막바지에 기분 좋은 긴장감”
 김보경, K리그1 승격팀 안양 동지
 “EPL서 쌓은 노하우 후배에 전수”

김기희	이름	김보경
중앙수비수	포지션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1989년 7월13일 부산	출생	1989년 10월6일 서울
1m88cm 85kg	체격	1m76cm 72kg
시애틀 사운더스(미국)	소속팀	FC 안양
23경기	A매치	38경기 4골
올림픽(2012)	주요 이력	올림픽(2012) 월드컵(2010-14)



팀을 옮겨 새출발하는 1989년생 뱀띠 베테랑 듀오 수비수 김기희(왼쪽)와 미드필더 김보경. 송지훈 기자

1989년생 뱀띠, 36살 동갑내기 베테랑 김보경과 김기희가 을사년 새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보경은 K리그1 승격팀 FC 안양, 김기희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시애틀 사운더스(김기희)에 유니폼을 각각 입고 선수생활을 이어간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인터뷰에 끼여이 응한 두 사람은 “선수 시절 막바지를 (이적과 함께)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만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희는 프로 축구 K리그1 울산 HD를 리그 3연패로 이끈 뒤 미국행을 선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뛰면서 우승까지 함께한 시애틀에 5년 만에 컴백한다.

김기희는 “미국은 ‘프로 스포츠의 천국’이라는 별명처럼 그라운드 안팎 환경이 최상이다. 또 과학적, 입체적으로 컨디션을 관리해준다”며 “과거 시애틀에 몸담았을 때 함께한

감독님(브라이언 슈메처)이 여전히 지휘봉을 잡고 있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 공부와 가족 등 은퇴 이후를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삼성을 떠나는 김보경은 “얼마 남지 않은 현역 생활을 K리그1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대부분 1부리그 무대가 처음인 안양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보경은 후배들 사이에서 ‘운동 바이블’로 불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절(카디프 시티)에 배운 훈련 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준다. 효과적이면서 올바른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KBK 풋볼)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김보경은 “후배들이 개인 훈련하는 걸 지켜봤는데, 10여년 전에 내가 했던 잘못을 여전히 답습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가까운 후배들부터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한 게 일이 커졌다”고 미소 지었다. 이어 “안양 후배들을 효과적인 훈련의 길로 잘 인도해 새 시즌 K리그1에서 ‘안양 돌풍’을 일으키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동갑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점이 많다. 대학(홍익대)에서 함께 축구를 했고, 나란히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랜 세월을 해외파로 활약했던 점도 비슷하다.

김보경은 세레소 오사카(일본)에서 프로에 데뷔해 카디프 시티, 위건 애슬레틱(이상 프리미어리그), 오이타 트리니타, 마쓰모토 야마가, 가시와 레이솔(이상 J리그) 등에서 뛰었다. 김기희는 알사일리아(카타르)와 상하이 선화(중국), 시애틀 사운더스(미국) 등을 거쳤다.

다양한 무대를 경험한 두 사람은 후배들을 향해 한목소리로 “나이의 굴레를 떨쳐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경은 “프로는 실력 하나로 부딪히는 무대다. 그런데도 ‘어리니까’ ‘후배니까’라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하는 후배를 종종 본다”며 “최근에는 젊은 선수 대부분이 K리그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는데, 꿈이 크면 클수록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어필하라”고 조언했다.

김기희는 “전에 시애틀에 몸담았을 당시 16살짜리 선수가 감독과 동료들에게 당돌할 만큼 할 말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프로에서는 나이보다 실력이 먼저다. 한국식 선후배 문화에 잠정도 있었지만, 더 많은 후배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자의 무기를 꺼내 보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동갑이라는 점 외에도 공

송지훈 기자

김하성, 탬파베이서 새 시즌... 2년 420억원 계약

메이저리그(MLB)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자유계약선수(FA) 김하성(29)이 마침내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탬파베이 레이스다.

ESPN은 30일(한국시간) “탬파베이가 김하성과 2년 총액 2900만 달러(약 420억원) 계약에 합의했다”며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올 시즌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잔여 계약 포기) 조항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올 시즌 연봉 1300만 달러를 보장받고, 325타석 이상 소화하면 인센티브 20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내년 시즌에도 탬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뛰면, 연봉 1600만 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상 ‘FA 재수’를 선택한 모양새라 올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 조항을 활용해 다시 FA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김하성은 2020시즌을 마친 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4년 보장 2800만 달러)에 사인하고 MLB에 진출했다. 4시즌 통산 타율 0.242, 홈런 47개, 20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06으로 활약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FA를 선택했다. 2023년에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리그 정상급 내야수로

자리 잡아 총액 1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도 가능해 보였다. 다만 지난 시즌 막바지 오른쪽 어깨를 다쳐 수술대에 오른 이력이 새 팀을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올 시즌에도 5월에야 그라운드 복귀할 수 있고, 어깨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태다.

MLB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김하성은 일찍 복귀해서 예전처럼 활약하고 올 시즌 뒤에 옵트아웃을 선언하는 게, 탬파베이는 그에게 퀄리파이 오퍼를 한 뒤 그가 수락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서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퀄리파이 오퍼는 원소속



메이저리거 FA 내야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소속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구단 역사상 야수 FA 최고액이다. [MLB 홈페이지 캡처]

구단이 FA에게 빅리그 고액 연봉자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 계약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수가 받아들이면 1년 뒤 다시 FA가 되고, 거절 후 팀을 옮기면 원소속 팀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1 또는 2라운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는다. MLB닷컴은 “수술 여파로 김하성의 송구 능력에 의문이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 팀인 탬파베이로선 해볼 만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탬파베이는 MLB의 대표적인 ‘스몰마켓’ 구단이다. 지난해 팀 연봉 총액이 30개 구단 중 28위였다. 김하성은 입단과 동시에 팀 내 최고 연봉자가 됐다. 기존 최고 연봉자였던 내야수 브랜든 로(1050만 달러)보다 250만 달러를 더 받는다. 탬파베이에서 연봉 1000만 달러 이상인 선수는 이들 둘과 내야수 안디 디아스(1000만 달러) 등 3명뿐이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김하성의 계약 총액 2900만 달러는 탬파베이 구단 역사상 야수 FA 최고액”이라고 부연했다.

배영은 기자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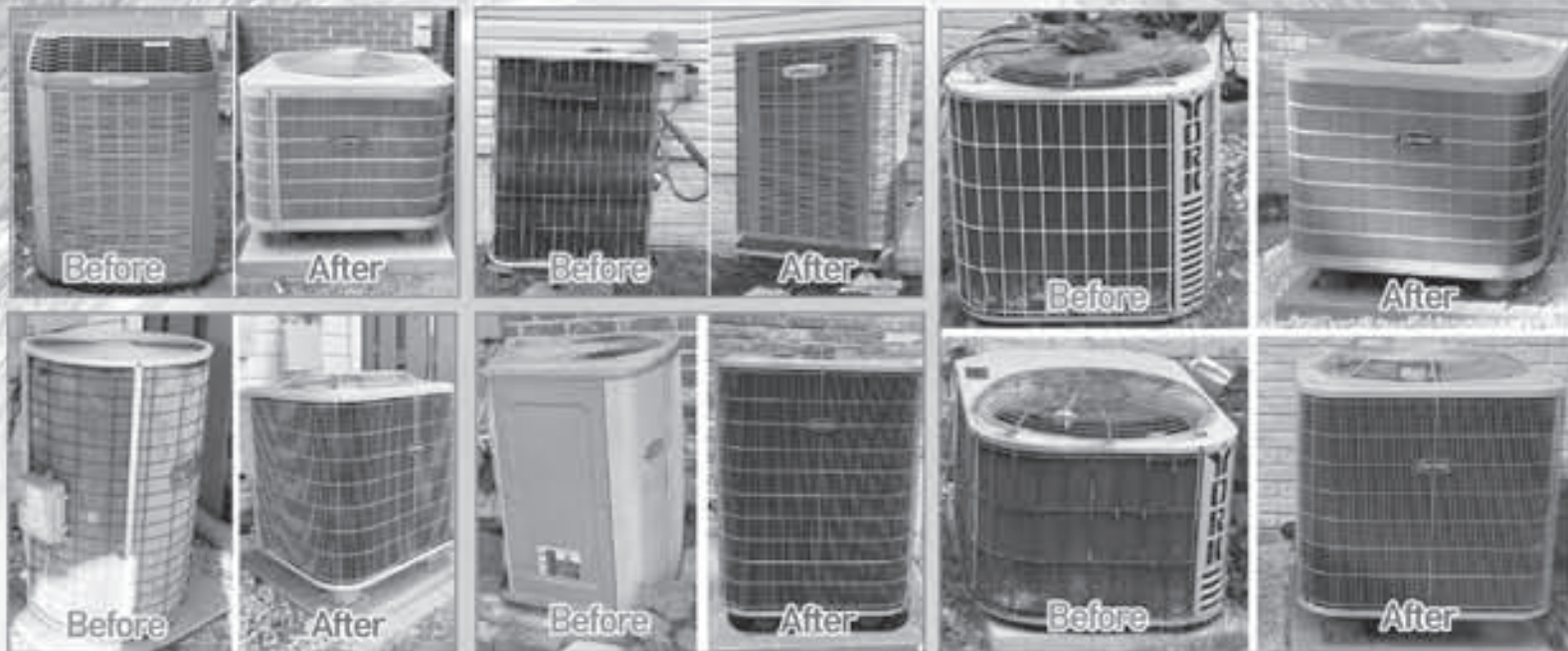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2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 (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 보조, RN 간호사, 리셉셔니스트, 액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티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트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룬델밀 사평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 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테크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홀 이층 욕실 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하나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워튼 도서관 아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홀 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 탁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홀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홀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홀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홀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홀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홀,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 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체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편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를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렌)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 (9-5pm) 856-304-1907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택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모집 \$15-17/h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 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험자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티트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 ▶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 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중앙일보

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용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 489 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 774 7443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험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시스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크러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들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역
240-644-4190

▶▶로튼세탁소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들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니, 준메케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헬
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기타/구인/청소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980-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력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 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 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렌트 방2 화1
부엌 화장실 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에난데일 K마트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넉넉
703 965 234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틸,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첸들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 344 62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함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charge of (something); (무엇을) 돌보다, 맡다

(Stan and Cory are in the office--)

(스탠과 코리가 사무실에 있다--)

Stan: I've decided that I need to make some changes and take charge of my life.
스탠: 나도 변화를 좀 주고 내 인생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
Cory: What brought this on?
코리: 왜 그런 결심을 했어?
Stan: I haven't been very productive for a long time so I need to do more.
스탠: 오랫동안 그리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서 뭘

가더 해야 되겠어.
Cory: How do you plan to make these changes?
코리: 어떻게 변화를 줄 계획인데?
Stan: I'm going to start by taking advantage of my free time. No television!
스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가 시작하려고. TV 안보고!
Cory: I've heard you say this before you know.
코리: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

Stan: That's possible but this time I really mean it.
스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Cory: Does that mean you're going to give up golf?
코리: 골프 그만 치겠다는 거야?
Stan: Not at all. I will probably play more.
스탠: 그런 절대 아니지. 더 많이 칠 거야.
Cory: I see. You're really telling me that you're going to play more.
코리: 알겠다. 진짜 하려는 말은 골프를 더 치겠다

는 거구나.
기억할만한 표현
▶ bring (something) on: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She brings on her own problems."
(그녀는 골칫거리를 자초합니다.)
▶ take advantage of (something): (무엇을) 이용하다.
"Hundreds of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sale."
(많은 사람들이 할인 판매를 이용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음.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잡음 (4)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7)곧게 믿음.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한다 (8)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늘 준비하여 두는 약 (10)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 (11)노래와 춤 (12)매우 비싸거나 귀한 것. 할값에 산 땅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로 둔갑을 했다 (15)공연하기 위하여 관람석 앞에 넓고 높직하게 만든 단 (16)예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람 (17)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18)불교의 출가 수행자 (20)상가집의 개.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삼구구 (22)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세계 (24)돈이나 물건을 갖기로 하고 빌려 쓸 (26)뱀의 새끼. ~가 와서 개라도 물어 갈까 봐 항상 문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다 (28)생물이 나서 자람 (29)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꺾여지른 듯한 낭떠러지. 구구절구 (30)웁으니 그르니 하며 서로 다름.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하니 영문을 모르겠다. 구신구구

세로열쇠

(1)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복권을 사는 사람의 꿈이요 (2)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명예나 체면 따위가 손상을 입음 (3)못나고 꼴불견이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손님 (4)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제 세상인 것처럼 거리낌없이 합부로 말하거나 행동함 (5)부드럽게 굽은 선 (6)쌀 따위의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곳. 이 평야는 우리나라 제일의 풍요로운 ~이다 (9)슬프고 애달픈 노래. 엘레지 (13)값이 싸거나 질이 좋지 못한 물건. 이 옷은 비싼 것인데도 ~처럼 보인다 (14)대표적인 즉석 식품. 전 세계에서 연간 1000억 개 이상의 ~이 소비된다고 한다 (15)넋째 손가락 (17)겨울. 툄 (18)양팀에서 각각 5명의 선수가 나와 한 번씩 번갈아 골문을 향해 공을 차조 (19)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림. 자연이나 사회에서의 큰 변혁 (21)아홉 자나 되는 큰 키. 키가 아주 큰 사람 (23)술집이나 음식점 따위의 이름 (25)분화구에서 분출된 마그마 (27)아름답고 귀한 것. ~ 같은 작품 (28)머릿속으로 떠올림. 당신 ~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한민복)

스도쿠

1	4		8					
8		5					4	1
2	6		3	1				9
	1	8	5					3
	3	9	1	8	6			2
			7			8		
3						1		4
	8		4					
	7				5	6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9	5	3	2	1	7	4
5	3	7	1	9	4	2	8	6
4	2	1	8	7	6	9	5	3
6	1	8	3	9	7	4	2	5
2	5	4	9	8	1	6	3	7
3	7	6	2	4	5	8	1	9
9	8	5	4	1	3	7	9	2
1	4	3	7	2	9	5	6	8
7	9	2	6	5	8	3	4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지역
 구인
 아침죽&양식국
 딜리버리겸 주방헬퍼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대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세기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약'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 아냐"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혀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었는데 두 달 여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화노 고메즈 (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화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려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 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방 이에 의지해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고메즈 한 한인이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화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안와사와 함께 손발 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 이다. 중풍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항,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화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7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목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아늘했던 발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자광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다마디를 풀어줘야 한다.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깨나 이상근 (영양이)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육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화노 고메즈 씨.
 보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줄이며 재활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반신 또는 한쪽 손가락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거나, 종종 손 발의 저림을 느낀다면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중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암침법과 6단계 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중풍 치료를 제공하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LA 한인타운 호바트 길 에 위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문의: (213)385-3304
 ▶ 주소: 809S, Hobart Blvd, Los Angeles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The JoongAng Los Angeles,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찌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0/10LBS*1BOX \$100/10LBS*1BOX
 \$14/lb 대추 \$11/lb 대추 \$7/lb 대추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H O T D E A L S S U P E R S A L E

2월의 세일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요리에 편리함을 더한 특허받은 기울기 41.5도 자동회전냄비 열가두는 자동회전냄비 인스타그램 유튜브 화제의 리뷰템! **바이탈 롤팬원통자동회전냄비**

당 함량을 49% 줄인 날씬한 저당밥으로 건강하게! 찹트레이, 8가지 취사모드 / 혈당관리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BANU 바누저당 밥솥 (흰색,검정)**

통가열 입체구조: 그레이, 머스터드, 민트 ~~\$290~~ **\$199**

24분 쾌속백미, 이지터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149~~ **\$7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재활전문이가 직접 제조/ 근육통, 관절염 등 즉각적인 효과 전세계 8개국 인증 제조 특허/ 시원하고 화끈한 핫&쿨 제형 **메디슨벨 알약 패치(48매 Pill Patch)**

가래,기침,천식 증상완화에 효과적인 생약성분 한방감기약 감기증상, 목통증과 두통개선/ 가래, 기침, 천식 증상 완화 **자모 연조엑스+안티캠 캡슐 번들**

숨쉬는 통기성 탄력원단 굴곡 밀착, 2가지 사이즈 **\$29**

자모3+안티캠2 **\$37.40** 자모6+안티캠4 **\$72.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무료 배송 Free Shipping

100% 순수발효효소 더부룩한 일상 트렌디한 관리 2주 감량 발효콤부과채효소 22%함유 섭취하기 용이한 스틱형 제품 **김소형원방 발효 콤부 과채효소 90g**

단멜리온 깊은 잔향과 부드러움, 은은한 향취가 촉촉하게! 땀기머리가 제안하는 풍부한 향으로 더욱 향기롭게 관리 **땀기 머리 수페온 데일리 무드 바디로션**

1BOX (30포) **\$39.99** 2BOX (60포) **\$69.99** 4BOX (120포) **\$119.97**

플로럴계열의 따뜻한 봄날의 향기 **\$15**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① 중앙일보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